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年 2月

碩士學位 論文

# 朱自清 散文의 言語 藝術性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專攻)

朴 芝 惠

# 朱自清 散文의 言語 藝術性 研究

A Study on The Artistic Style of Language in  
ZHU ZI QING's Proses

2012年 2 月 24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專攻)  
朴 芝 惠

# 朱自清 散文의 言語 藝術性 研究

指導教授 韓宗完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專攻)

朴芝惠

# 朴芝惠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曹喜武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李金恂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韓宗完 (인)

2011年 11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 〈目 次〉

### ABSTRACT

제 1 장 序論 .....	1
제 1 절 研究 目的 .....	1
제 2 절 研究동향 및 方法 .....	2
제 2 장 朱自淸의 文學人生 .....	4
제 1 절 生涯 .....	4
1.1 生平 .....	4
1.2 文學家로서의 生涯 .....	5
1.3 學者로서의 生涯 .....	7
1.4 民主鬪士로서의 生涯 .....	10
제 2 절 時機별 作品 分析 .....	14
2.1 初期散文 (1923년~1927년) .....	14
2.1.1 人物·事件을 記述한 敘事散文 .....	15
2.1.2 風景을 描寫한 抒情散文 .....	19
2.2 中期散文 (1927년~1937년 抗戰 이전) .....	22
2.3 後期散文 (抗戰~1948년) .....	29
제 3 절 作品에 대한 評價와 影響 .....	31
제 3 장 朱自淸散文의 言語藝術性 分析 .....	33

제 1 절 繪畫美를 통해 본 藝術的 특징 .....	33
1.1 입체감 .....	34
1.2 색채미 .....	37
제 2 절 音樂美를 통해 본 藝術的 특징 .....	40
2.1 서정적 언어활동 .....	40
2.2 수사법 활용 .....	43
제 3 절 口語體로 본 藝術的 특징 .....	47
제 4 장 朱自淸 散文의 思想的 특징 .....	52
제 1 절 人道主義 .....	52
제 2 절 愛國主義 .....	56
제 5 장 結論 .....	61
參考 文獻 .....	63

# ABSTRACT

## A Study on The Artistic Style of Language in ZHU ZI QING's Proses

PARK JI HYE

Adviser : Prof. HAN JONG WAN. Ph.D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raditionally, Chinese prose was regarded as mainstream of traditional literature with poetry. That is succeeded and developed with numerous achievements and ancient history from prose of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 in the period of Seon jin , prose of the eight great writers of Tang and Sung, short prose (Sopum prose), 5·4 Colloquial prose, prose in 1950·60s and after 1980s to until now. Though prose has short length, so it seems like to has limitation of amounts, but it can be the genre that express the inner world of the writer best without distortion with sincere languages and nonfictional structure within its short amount.

Prose of China covers all matters of that period including history and philosophy with prose of, Zheng Luwen and Dialectic Passages as well as tendency of pure literary elegant prose, and these traditions keep its basic frame in the form of short prose and essay in the modern prose, too. In other words, modern prose of China expresses and speaks

psychological world and emotions of writers which was not passed media than any other genres, and it ranges various problems for society and life at that time comprehensively. Here, another fact to pay attention is that literature is facing serious challenge in the haughty waves of the market economy in recent days, but prose is getting loved day by day in spite of enormous impact of social changes at that time to literature.

Zhu Zi Qing (朱自清) told earlier that as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literature of China, though it has short period of 30 years, but it reached to the period of prose from the period of poetry. In Korea, it is increasing that the tendency that the popularity of essay recently, and in the mood that also the concern for the overseas essay is increasing, so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works of modern prose of China and special researches are making development actively. Zhu Zi Qing, the writer who was famous in the modern literary world of China is the great writer who was well-known in Korea for his major work 《Appearance from Behind (Beiying (背影))》. Therefore, in this thesis, it would be attempted to overall analysis for the linguistic artistic value for the subject of prose of Zhu Zi Qing, who is the one of the best prose writers of modern literature of China. Prose of Zhu Zi Qing got evaluation that it is the connotative implicative and excellent artistic works of thoughts. Especially, as for language, it is simple and unaffected and he achieved high artistic achievement of fus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정경, scenery) by having a command of modern colloquial language.

# 제 1 장 序論

## 제1절 研究目的

전통적으로 중국 산문은 시가와 더불어 전통문학의 주류로 간주되어 왔다. 그것은 선진시기 제자백가 산문에 이어서 당송팔대가 산문, 명·청 시대의 소품산문, 5·4 백화산문, 1950·60년대 산문 그리고 198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성과를 가지고 꾸준히 계승, 발전되어 왔다. 산문은 비록 그 길이가 짧아 용량에 한계가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짧은 분량 속에서도 비허구적인 구성과 진실한 언어로써 작가의 내면세계를 가장 굴절 없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산문은 순수문학적인 미문의 경향뿐만 아니라 정론문, 의론문의 산문과 같이 역사와 철학을 포함한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대 산문에 있어서도 소품문과 잡문이라는 형태로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현대 산문은 매개를 거치지 않은 작가들의 정신세계와 감정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솔직하게 표출, 토로되어 있으며 그 이면에는 또한 당시의 사회와 인생에 대한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섭렵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문학이 근래 시장경제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산문은 당대의 사회변혁이 문학에 가한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중국 현대 산문에 관심을 가진 데에는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 면이 없지 않다. 산문은 시가처럼 엄격한 형식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문학 장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산문 작품들을 통해 중국의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면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朱自淸은 일찍이 중국현대문학의 발전에 있어 비록 짧은 30年 기간이지만, 점차 시가의 시대에서 산문의 시대로 이르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수필의 인기가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국외수필에 대한 관심 또한 날

로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중국 현대 산문 작품의 소개와 전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국현대문단에서 명성이 드높았던 문학가 朱自淸은 대표작 《뒷모습(背影)》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대작가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중국현대문학 최고의 산문작가 중 한명인 朱自淸의 산문을 대상으로 언어 예술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진행 해보고자 한다. 朱自淸의 산문은 사상이 함축적이고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언어는 소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현대구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여 정경융합이라는 고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다.

## 제2절 研究동향 및 方法

朱自淸의 산문은 국외에서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근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 논문 중 許琇禎의 <朱自淸及其散文><sup>1)</sup>에서는 朱自淸의 생애 및 문학사상, 산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도 劉喜洲의 <朱自淸의 散文研究><sup>2)</sup>, 朱寅善의 <朱自淸 散文의 特性 研究 - <背影>, <荷塘月色>을 중심으로><sup>3)</sup>, 吳眩娃의 <朱自淸 散文의 發展過程 研究><sup>4)</sup>, 朴宣姬의 <朱自淸의 小品文 研究><sup>5)</sup>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우선 劉喜洲의 <朱自淸의 散文 研究>는 제재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朱寅善의 <朱自淸 散文의 特性 研究 - <背影>, <荷塘月色>을 중심으로>는 <背影>, <荷塘月色>을 중심으로 朱自淸 산문의 기교와 특성을 집중 연구 고찰하였다. 吳眩娃의 <朱自淸 散文의 發展過程 研究>는 시기별로 작품을 나누어 내용분석을 하였고, 朴宣姬의 <朱自淸의 小品文 研究>는 주자청 소품문의 제재유형을 자전적 제재와 자연 경물성 제재, 사회 정치성 제재로 나누어

---

1) 許琇禎, <朱自淸及其散文>, 國立臺灣師範大學教, 1990.5

2) 劉喜洲, <朱自淸의 散文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82.2

3) 朱寅善, <朱自淸散文의 特性研究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4) 吳眩娃, <朱自淸散文의 發展過程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5) 朴宣姬, <朱自淸의 小品文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분석하였다.

朱自淸의 산문은 시와 그림을 융합한 듯 한 고도의 예술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구어체 묘사와 깊이 있는 사상성 등으로 인해 기존에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단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작가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언어와 사상을 결합한 종합연구는 朱自淸 산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자 독창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朱自淸 산문의 언어예술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먼저 작가의 생애와 문학 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주요 작품에 대한 평가를 종합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드러난 언어의 회화미, 입체미, 색채미, 음악미, 서정미, 구어체 등 특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겠다. 또한 언어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작품에 드러난 사상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진행 할 것이다.

이는 朱自淸 산문의 가장 큰 특징인 언어예술성과 사상적 특징을 결합한 연구내용으로써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구성이 될 것이다.

## 제 2 장 朱自淸의 文學人生

### 제1절 生涯

#### 1.1 生平

朱自淸은 중국현대문학의 저명한 산문가, 시인, 학자이다. 1898년 11월 22일 江蘇省의 東海縣의 작은 관료 가정에서 태어났고, 원명은 字華, 호는 實秋이다.<sup>6)</sup> 東海는 그의 조부가 재직한 지방이고, 그의 본적은 浙江·紹興이다. 6세 때, 집이 동해에서 揚州로 이사함에 따라 그는 양주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揚州人”이라 자칭하게 된 것이다.<sup>7)</sup>

朱自淸은 어렸을 때, 즉 5세 때부터 부모의 계몽교육을 받았고, 후에는 사설 서당에서 전통적인 고전교육을 받았다. 朱自淸이 입학하여 공부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시대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청 왕조의 멸망과 함께 과거 제도가 폐지되어 각지에 신식학당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1906년 8세에 그는 安徽의 旅揚公學이라는 신식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揚州의 兩淮中學<sup>8)</sup>을 거쳐 19세에 北京大學의 豫科에 입학했다. 그 해 겨울방학에 양주에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미 약혼했던 무중겸(武鍾謙)<sup>9)</sup>과 결혼을 하고 1917년, 북경대 철학과에 들어갔다.

같은 해 5월, 그는 3년만에 졸업을 하고 江蘇省, 浙江省 일대에서 5년 동안

---

6) 후에 이름이 ‘朱自淸’, 字가 ‘佩弦(佩弦)’으로 바뀌었다.

7) 朱自淸, 《我是揚州人》, 《朱自淸自述. . . 傳奇故事》(江蘇: 江蘇文艺出版社, 1997.1), 1~2쪽: 「六岁那一年父亲将全家搬到揚州. . . 现在亡妻生的四个孩子都已自称为揚州人了; 我比起他们更算是在揚州人长成的, 天然更是该算是揚州人了.」

8) 지금의 양주중학(揚州中學)

9) 신해혁명이 일어난 그 해, 즉 1911년 朱自淸의 나이 14살 때, 양주의 명의 무위삼의 딸인 무중겸과 약혼을 하였다.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게 된다. 浙江省의 第一師範<sup>10)</sup>, 臺州의 吳淞中國公學, 浙江省의 第六師範<sup>11)</sup>, 第十中學校<sup>12)</sup>, 寧波의 第四中學, 白馬湖 春暉中學<sup>13)</sup>의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이 5년의 교원생활동안 교육과 동시에 신문학의 창작에도 노력하여 신시와 산문을 창작하기도 했다.

1920년 11월 현대문학 최초의 문학사단인 문학연구회가 북경에서 성립되었는데, 朱自清도 여기에 참여해서 초창기 회원의 일원이 되어 활약을 하였다. 1925년 8월, 그는 俞平伯의 추천으로 清華大學 교수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일생을 청화대학에 몸담았다. 청화대학에 온 후로 그의 창작활동은 그 전까지의 시가 중심에서 산문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고전문학 연구를 시작했다.

1929년, 부인 무중겸(武鍾謙)이 양주에서 세 아들과 세 딸을 남기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해에 그는 청화대학 중문과 주임을 대행하고, 또 燕京大學의 강의도 맡았다.

1931년 6·7월 사이에 진죽은(陳竹隱)과 약혼을 하고, 8월부터 약 1년동안 영국 런던대학에서 언어학과 영국문학을 공부하였다. 1932년 7월 말경에 귀국하여 8월에 진죽은(陳竹隱)과 상해에서 결혼을 했다. 그 해 9월, 정식으로 청화대학 중문과를 주관했다. 이때부터 그는 중국 고전시가의 교육과 연구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고, 또한 잡문과 서평을 쓰기도 했다. 그 이후 그의 몸은 매우 쇠약해져 위병에 걸렸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든 투병생활 속에서도 교육과 연구에 힘썼다. 1946년 청화대학은 다시 북평으로 옮겨왔으나 이 때 이미 그의 병세는 매우 심각해져 결국 1947년 8월 12일 51세로 짧은 여생을 마감하였다.

## 1.2 文學家로서의 生涯

---

10) 杭州, 1920~1922년

11) 臺州, 1922년

12) 溫州, 1922년~1924년

13) 白馬湖, 1924년~1925년

1919년 원단, 북경대 학생들이 진보적인 교수들의 영향 아래 “新潮社”라는 문학단체를 결성하여 《신조》 월간을 출판했다. 朱自淸 역시 이 단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의 문학창작 생애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 되었다.

그가 “나는 시와 소설과 산문을 썼다. 25세 이전에는 시 쓰기를 좋아했지만 지금 몇 년동안 시적인 정취가 고갈되어 붓을 던진지 오래이다..... 내가 쓴 것은 대부분 산문이다.”<sup>14)</sup>라고 표현했듯이 그의 신문학 활동은 먼저 신시 창작에서 출발하여 산문작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작품은 대부분 《종적(蹤迹)》<sup>15)</sup>과 《설조(雪朝)》<sup>16)</sup>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산문가로 유명하지만 시인으로서도 초창기 중국현대문학에 새로운 시도를 하여 많은 공헌을 했다. 우선 그는 1922년 葉聖陶·俞平伯 등과 함께 《詩》 월간을 창간했다. 이것은 신문학 사상 첫 번째 시 간행물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朱自淸은 5·4시기의 신 시인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口語體를 사용한 시를 써서 성공한 개척자로서, 현대문학 사상 첫 번째 장편 서정시 <휘멸(毀滅)>을 창작했다. 또 《中國新文學大·詩集》을 편집했고, 그것의 <導言>을 써서 가장 먼저 신시 창작에 대한 총결을 진행하였다.

1925년에는 청화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신시를 쓰는 대신 산문으로 전환하여, 1928년 10월, 첫 산문집 《뒷모습(背影)》을 출간하였다. 특히 《뒷모습》이란 작품은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작품으로 중국에서는 중학생이면 누구나 암송하는 작품이다. 그 후, 1년여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1932년에 귀국하여 더욱 창작에 힘써 산문집 《너와 나(你我)》<sup>17)</sup>, 《유럽잡기(歐游雜記)》<sup>18)</sup>, 《런던잡기(倫敦雜記)》<sup>19)</sup>를 출간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에 그는 계속 산문과 잡문창작에 힘을 기울여 《아속공상을 논함(論雅俗共賞)》<sup>20)</sup>, 《표준과 척도(標準與尺度)》<sup>21)</sup> 등을 출판했다.

14) 朱自淸, <背影.序>, 《朱自淸全集》第一卷, 29~34쪽

15) 東亞圖書館, 1924년 12월 출판, 新詩 31수, 산문 4편이 수록되었다.

16) 商務印書館, 1922년 6월 출판. 문학연구회 총서로 朱自淸의 시는 19수가 수록되었다.

17) 商務印書館, 1936년 3월 출판

18) 開明書店, 1934년 9월 출판

19) 開明書店, 1943년 4월 출판

20) 觀察社, 1948년 5월 출판

21) 文光書店, 1948년 4월 출판

신문학에 대한 朱自淸의 가장 큰 공헌은 역시 산문소품에 있다. 그것들은 신문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周作人, 冰心등의 뒤를 이은 대표적인 소품 산문가로서 뛰어난 ‘미문’ 들을 창작하여 복고파들이 백화로는 ‘미문’ 을 쓸 수 없다는 부정적 관념을 철저히 타파하였고, 구문학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다<sup>22)</sup>

다음으로 그는 중국 고전문학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5·4 中西문화 교류의 배경 하에서 중국민족 특색을 지닌 산문체제와 풍격을 창조했다.<sup>23)</sup> 그의 산문은 매우 높은 예술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산문시 <총총(匆匆)>, <뒷모습(背影)>, <달빛 연못(荷塘月色)>, <봄(春)> 등의 몇편은 줄곧 백화미문의 모범으로 평가되어, 지금까지도 중등학교의 어문 교재로 채택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학 교육과 산문창작의 예술적 발전에 많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1.3 學者로서의 生涯

1925년 청화대학에 온 후로 그는 고전문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1945년을 전후한 시기는 朱自淸이 학자로 보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27년, 반혁명적인 4·12 정변이 발생하여 중국 공산당원과 군중을 잔인하게 학살함으로써 “광명의 중국”은 “암흑의 중국”으로 바뀌었다. 북벌전쟁의 실패와 피로 물든 현실세계에 있어서 朱自淸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의기소침함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개인적인 길을 선택을 하였다. 고전문학 연구의 “상아탑”으로 들어가 國學이라는 제3의 길을 선택하였다.<sup>24)</sup> 그는 <그쪽으로 가자(那里走)>에서 이러한 사상의 변화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22) 吳爲公·李樹平 編 《朱自淸散文全編》(浙江：浙江文藝出版社，1995)，2쪽 참조

23) 吳爲公·李樹平 編 《朱自淸散文全編》(浙江：浙江文藝出版社，1995)，3쪽 참조

24) 吳周文·張王飛·林道立，《朱自淸散文藝術論》(江蘇：江蘇教育出版社，1994)，9쪽 참조

구시대가 막 붕괴되고, 신국면이 미처 도래하지 않았을 때, 쇠퇴와 소동은 사람들을 당황케 한다. .... 혁명 혹은 반혁명에 참가해야만 비로소 이러한 당혹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실제적인 행동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다만 잠시 도피하는 방법만이 있다. .... 이 세 갈래 길에서 나는 장차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 나는 결국 국학 속에서 하나의 제목을 찾아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걸음마를 시작했다. “국학은 나의 직업이요, 문학은 나의 오락이다.” 이것이 현재 내가 걷고 있는 길이다.

(在旧时代正在崩坏, 新局面尚未到来的时候, 衰颓与骚动使得大家惶惶然。只有参加革命或反革命, 才能解决这惶惶然。.... 不能或不愿参加这种实际行动时, 便只有暂时逃避的法。.... 在这三条路里, 我将选择哪一条呢? ...我终于在国学里找着了一个题目, 开始像小儿的学步。“国学是我的职业, 文学是我的娱乐。”这便是现在我走着的路)<sup>25)</sup>

학자와 교수로서의 朱自清은 고전문학, 어문교육, 언어학, 문예학, 미학 등의 영역에도 깊은 조예와 공헌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전문학 연구와 어문교육에 가장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실적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26)</sup>

첫째는 중국문학 비평에 대한 성과이다. ‘중국문학비평은 그가 여러 해 동안 힘을 기울인 학문으로 청화연구원에 중국문학 비평조를 설립하여 ‘文學批評’, ‘文辭研究’ 등을 강의했다. 이 방면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각각의 역사적 관념과 사용한 어휘를 모두 상세한 분석을 더했으며, 그것의 변천과 정확한 함의(含意)를 연구했다. 《經典常談》<sup>27)</sup>은 《시경(詩經)》, 《춘추(春秋)》, 《초사(楚辭)》,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의 고적을 체계적으로 평술한 논문집으로, 내용이 심오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져 지금까지도 고전문학 연구의 입문서로 쓰이고 있다.

25) <那里走·我们的路>, 《朱自清全集》 第4卷, 235~244쪽

26) 与维杰, <朱自清和学术研究>

27) 文光書店, 1946년 5월 출판

《詩言志辨》<sup>28)</sup>은 필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저작이다. <詩言志>, <比興>, <詩教>, <正變> 네 개 방면의 시론에 대해 깊이 정밀한 고찰을 했으며, 그것들의 경위와 변화·발전해온 사적을 정리하여 잘못된 논조를 규정했다. 또 <論逗眞與如畫>, <好與妙>과 항전 이전에 청화대학에서 강의한 《詩文評鈔》 등은 모두 중국문학비평의 역사적 의의로부터 분석을 하여 쓴 중요한 저작이다.

두 번째는 중국문학사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청화대학에서 매주 4시간씩 전 학년 교과과정인 “中國文學史”를 여러 해 동안 강의했으며, 고금의 자료와 관련 참고서적을 이미 수집하여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宋朝說話人的四家>라는 고증논문을 써서 <청화학보(淸華學報)>에 발표했고, 文學史講義稿를 정리했으며, 또한 새로운 관점의 中國文學史를 쓸 생각이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세 번째는 시에 관한 연구이다. 朱自淸은 시인이다. 그는 《詩經》에서 현대 시에 이르기까지 시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였다. 대학에서 ‘詩’라는 과목을 몇 해간 강의하면서 李賀, 陶淵明에 대한 나이 고증을 하여 <陶淵明年譜中之問題>, <李賀年譜>등을 썼다. 또 古詩十九首, 樂府, 唐宋詩에 대한 연구로 진행하여 <十四家詩鈔>, <宋五家詩鈔>, <宋詩鈔略>등을 저술했다. 항전 이전에 청화에서 ‘歌謠’란 과목을 강의했는데, 현대가요를 시경과 악부에 대조하여 강의했으며, 후에 강의록을 정리하여 《중국가요(中國歌謠)》<sup>29)</sup>란 책을 출판하였다.

한편 朱自淸은 시종 중학·대학의 어문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니, 葉紹鈞과 함께 《國學教學》<sup>30)</sup>, 《精讀指導舉隅》<sup>31)</sup>, 《略讀指導舉隅》<sup>32)</sup> 등의 책을 공동 저술했다. 또 여러 종의 교재와 교과서를 편집했고, 임종 전에는 葉蘇均, 呂叔湘과 함께 개명서국(開明書局)의 《高級國文讀本》을 편찬했다. 이렇듯 그는 당시 대표적인 어문교육가였다. 일찍이 葉聖陶는 “그는 국문교사와 문학교사로서의 직분을 다했다”<sup>33)</sup>라고 말했다.

28) 開明書店, 1947년 8월 출판

29) 作家出版社, 1957년 9월 출판

30) 開明書店, 1945년 4월 출판

31) 四川教育科學館圖文教學 총서의 하나, 商務印書館, 1942년 3월 출판.

32) 四川教育科學館圖文教學 총서의 하나, 商務印書館, 1943년 1월 출판.

## 1.4 民主鬪士로서의 生涯

5·4 시기 중국문단에 나타난 많은 걸출한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朱自淸 역시 몰락해 가는 봉건 사대부 가정에서 태어나 역사적 변환의 시기에 처해 있었다. 그가 5·4 신문화 운동의 발원지인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의 가정형편이 날로 어려워지다가 1917년, 그의 부친이 관직을 그만두자 그의 학업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북방의 겨울은 매워 추웠지만 朱自淸은 다 해진 솜이불 하나로 견뎌야만 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밧줄로 이불 아래를 묶어 자야만 했을 정도로 가난했다. 봉건관료 집안의 후손이었던 朱自淸은 그야말로 가난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생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sup>34)</sup> 신해혁명 전후로부터 5·4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지식인은 救國救民의 길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봉건 통치의 종속에서 벗어나 민중을 향하여 나아갔다. 어떤 이는 투사의 모습으로 혁명의 흐름 속에 투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상·문화 영역에서 힘든 계몽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5·4 에 의해 환기된 일부 지식인들은 점점 민중의 운명과 한데 결합된 독립적 사회 혁신역량을 형성했다.

朱自淸은 중국 현대 지식인이 겪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분석을 했었는데, 만년에 여러문장을 통해 이 점을 이야기했다. 뭇함의 기술에 의하면, 1948년 7월 朱自淸이 세상을 떠나기 10여 일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집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과거 사대부의 지식은 모두 정치상에서, 그리고 관직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는 관직을 하는 것 외에 지식인은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사대부는 봉건사회에서 온 것으로 공업화 도시로부터 생겨난 지식인과는 다르다. 구 지식인, 즉 사대부는 황제에 의지하여 생존하는 것이고, 신 지식인은 반드시 황제(혹은 군벌)

33) 葉聖陶, 《朱佩弘先生》, 〈朱自淸〉(第1版: 香港: 三聯書店, 1983.5), 231쪽

34) 邢富君, 〈朱自淸的人生之路与文学贡献〉, 〈辽宁师范大学学报: 社科版(大连)〉, 1991, 87쪽

에 기대어 생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지식인은 비교적 자유롭다.

(过去士大夫的知识都用在政治上, 用来做官。现在则除了做官之外, 知识分子还有别的路可走。士大夫是从对建社回来的, 与从工业化都是产的新知识分子不同。旧知识分子一士大夫靠皇帝生存的, 新知识分子则不一定靠皇帝(或军阀)生存, 所以新知识分子是比较自由的。)<sup>35)</sup>

그는 또 현대 지식인의 분야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있다.

지식인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 하나는 악당과 한 패가 되어 어용문인으로써 위로 오르는 것인데,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 모두 이러한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아래로 가는 것인데.....

(知识分子的道路有两条: 一条是帮闲帮凶・向上爬, 封建社会和资本主义社会都有这种人; 一条是向下的)<sup>36)</sup>

그는 바로 이 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 글은 5·4 이래 지식인 운명에 대한 심각한 총결이며, 동시에 자신이 걸어간 일생에 대한 회고이기도 하다. 그는 바로 ‘向下’의 길을 걸은 신지식인 인 것이다.

1919년 5월 4일, 중국혁명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위대한 5·4 운동 중에 진리를 추구하는 애국청년 지식인들이 비분강개하며 혁명의 맹렬한 조류에 뛰어들었다. 朱自清 역시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5·4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sup>37)</sup> 학교 학생연합회에서 일을 했고, 1920년 봄, 북경대 학생들이 조직한 ‘평민교육강연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군중 속으

35) 朱自清, <知识分子今天的任务>, 《朱自清全集》第4卷, 538쪽

36) 朱自清, <知识分子今天的任务>, 《朱自清全集》第4卷, 538쪽

37) 진죽은(陳竹隱), <憶佩絃>, <新文學史料> (第1輯, 1978): 「일찍이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는 그 유명한 ‘5·4’ 운동에 참가하였고, 또한 저명한 공산당인 등중하 등과 돈독한 우의를 맺었다.» (早年, 在北京大学读书的时候, 他已经参加过我国著名的五四运动, 并和著名的共产党人邓中夏等建立了很好的友谊)

로 가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또 일찍이 강연단 제4조 서기를 맡아 조원들을 이끌고 북경성을 떠나 縣을 두루 순회하며 강연을 했다.<sup>38)</sup>

이처럼 朱自淸은 청년시기부터 줄곧 광명과 진리를 추구하였고, 그것을 위해 외치고 노래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이 불가피하게 그를 시대적 고민과 개인적 방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비교적 긴 시간동안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의 생활은 항상 청빈했다. 북경대 졸업 후, 江蘇·浙江에서의 교원생활 중에도 그는 여전히 궁핍했으며, 자식이 생기면서 그의 부담은 날로 커져갔다. 그 후 고통스런 항전시기와 유랑 중에 그는 여전히 강단을 지켰으며 동시에 전시의 힘든 생활의 부담을 감당했다. 이 때 그에게는 이미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저명한 작가·학자의 명성이 있었기에 그는 일찍이 국민당 당국으로부터 중경정부에 와서 관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 받았었다. 西南聯大의 국민당 교수들 역시 그와 聞一多가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관계를 맺었다면 즉시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정직한 학자의 본분을 굳게 지켰다.

1928년, 그는 <그쪽으로 가자(那里走)>를 써서 자신과 시대의 관계, 생활노선에 대한 선택을 논술했다. 이 문장 속에 대혁명 실패 후의 정치 시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들어있다. 국민당의 淸黨, 反共 정책에 대한 불만과 투쟁의 행렬에 가입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내 자신을 해부하여 내가 혁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소자산 계급의 테두리 속에서 30년을 살았다. ....도시에서 성장하여 농사를 짓거나 호미를 쥐어보지도 않았으며, 퇴약별을 쪼이거나 폭우를 맞지도 않았고, 또한 나무토막을 톱질하거나 쇠를 두드려 본 적이 없다. ...

38) 蔣荫楠 · 严迪昌, <朱自淸的生平及其创作道路>, 《朱自淸散文的语言艺术》(福州:福建教育出版社, 1988), 3쪽: 「4월중에 전국을 순회하며<평민교육은 무엇인가? (平民教育是什么?)>와 <자신을 믿어라(靠自己)> 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고, 북경에서는 <우리는 왜 노동절을 기념해야 하는가? (我们为什么要纪念劳动节)>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

나는 이러한 일들의 흥취를 예상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일들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재미가 있다하더라도 나의 체력이 미치지 못하니, 결국 나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하물며 가족들 모두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 그들을 버리고 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활을 바꾼다는 것, 즉 내가 무산계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 이른바 신시대의 급선봉에 단연코 나의 몫은 없다!

(我解剖自己, 看清我是一个不配革命的人! .....我在P e t t y B o u r g e o i s i e里活了三十年, ....我是生长在都市里的, 没有扶过犁, 拿过锄头, 没有曝过毒日, 淋过暴雨。我也没有锯过木头, 打过铁....我不能预想这些工作的趣味;即使它们有一种我现在还不知道的趣味, 我的体力也太不成, 终于是无缘的。况且妻子儿女一大家, 都指着活, 也不忍丢下了走自己的路。所以我想换一个生活, 是不可能的, 就是, 想轧入P r o l e t a r i a t, 是不可能的。)39)

朱自清的 이러한 태도는 실로 혁명의 지표를 매우 선명하게 떠벌리는 혁명 작가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는 당시 격류에 용감히 뛰어들어 조류를 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가 安身立命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문화, 국학, 문학이었다. 이로부터 그는 고요한 서재로 들어갔다. 이 길을 그는 <죽은 길(死路)>이라 칭했는데, 이것으로 봐서 확실히 그는 자신이 격류 속에서 나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그가 정직한 지식인의 양지를 고수한 것이고, 동시대에 자신의 역량을 민족문화 건설에 바친 선택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 그를 이 <죽은 길(死路)> 에서 밀어냈다.40)

그는 정직한 지식인으로서 재난에 처한 조국을 위해 진리와 광명을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우선 조국의 운명을 인민의 해방투쟁과 연계시켰고, 그런 후에 자각적으로 인민을 향해 나아가 곧 강한 혁명민주주의 투사가 되었다.

항전 승리 후, 聞一多의 암살로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9년 동안 떠나 있었

39) <那里走·时代与我>, 《朱自清全集》第4卷, 229~235쪽

40) 邢富君, 《朱自清的人生之路与文学贡献》, 89쪽 참고

던 북평에 돌아왔을 때 청화의 서재는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서재를 지킬 수가 없었다. 국민당 당국이 마음대로 사람을 체포하는 등 부패가 날로 심화되는 혼란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그의 사상·감정 역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진보적인 학생운동 일변에 서서 국민당의 암흑 통치에 반대하는 여러 항의선언에 서명했다.<sup>41)</sup>

생활의 빈곤은 역시 朱自淸으로 하여금 한층 더 민중의 운명과 가깝게 만들었다. 그는 청화대학 중문과 교수 중 급료가 가장 높았으나, 매월 겨우 3포대의 밀가루 밖에 살 수 없었다.<sup>42)</sup> 따라서 굶주림과 추위로 체중이 줄어 45kg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있는 힘을 다해 여러 편의 문장을 썼다. 임종에 이르러서도 가족들에게 “국민당이 배급하는 미국 밀가루를 사지 말라!” 고 부탁했다. 이에 모택동은 “朱自淸은 중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굶어죽을지언정 미국의 구제식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聞一多와 朱自淸을 칭송하는 글을 써야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나타냈다.”<sup>43)</sup>라고 그를 치켜세웠다.

현실의 역량과 시대의 변천이 朱自淸으로 하여금 서재를 나와서 민주투쟁의 대오에 서게 했고, 결국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현실투쟁 속으로 나아갔다.

## 제2절 時機별 作品 分析

### 2.1 初期산문 (1923년~1927년)

朱自淸은 유독 산문에 애정을 쏟아부은 작가이고, 그런 만큼 그의 문학창작

---

41) 陳竹隱, <追憶朱自淸>, 《朱自淸自傳》 313쪽

42) 朱喬森, <父親永遠活在我心中>, 《朱自淸自傳》 (第一版: 江蘇文藝出版社) 375쪽

43) 毛澤東, <別了, 司徒雷登> 중: 「朱自淸一身重病, 寧可餓死, 不令美國的‘救濟浪’。。。我們應當爲文一多頌, 爲朱自淸頌, 他們表現了我們民族的英雄氣概。」

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 역시 바로 이 산문에 있다. 1928년 그는 《뒷모습(背影)》에서 자신의 문학양식에 대한 선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시도 썼고, 소설도 썼고, 산문도 썼다. 시 쓰기를 좋아한 것은 25세 이전이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시정이 고갈되어 붓을 놓은지 이미 오래다. ... 희극에 이르러서는 시종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내가 쓴 것은 대부분 산문이다.  
(我写过诗, 写过散文。二十五岁以前, 喜欢写诗; 近几年诗情枯竭, 搁笔已久。...至于戏剧, 更是始终不敢染指。...我所写的大抵还是散文多)<sup>44)</sup>

1923년 그는 장편 서정시 <훼멸(毀滅)>을 발표하고 같은 해에 유명한 산문 <노젓는 소리와 등불그림자의 진회하(桨声灯里的秦淮河)>를 발표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의해 ‘백화 미문의 모범’이라 칭찬을 받으니 그의 詩作에 비해 영향이 훨씬 더 깊었다. 이로부터 그는 자신의 시적 정취를 산문 속에 쏟아 부었다.

1923년 후부터 그는 산문창작으로 전향하여 이후 줄곧 멈춘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예술 풍격으로써 중국 현대산문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하여 5·4 이래 가장 뛰어난 산문작가가 되었다.<sup>45)</sup>

朱自清的 초기 산문은 《蹤迹》과 《背影》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 그의 산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인물과 사건을 기술한 敘事散文과 풍경을 묘사한 抒情散文으로 나눌 수 있다.

### 2.1.1 人物·事件을 記述한 敘事 散文

서술성이 강한 산문으로서 화려하고 농염한 형용을 하지 않고 담담한 언어

44) 《背影·序》, 《朱自清全集》第1卷, 33쪽

45) 王瑤, 〈念朱自清先生〉, 《中国现代文学史论集》, 370쪽

와 평이한 서술에 정감을 나타내고 있다. <뒷모습(背影)>, <생명의 값 70전(生命的價格七毛錢)>, <배 안의 문명(航船中的文明)>, <위걸삼군을 추도하며(哀韋杰三君)>, <여행잡기(旅行雜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산문은 직접 현실생활로부터 소재를 얻어 당시의 어두운 사회를 비난하고 사회의식이 비교적 강한 작품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작품들은 사상면에서 작자의 정직, 열정, 진보의 마음을 보다 잘 표현해 낼 수 있다. 이 많은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 몇 편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 볼 작품은 <생명의 값 70전(生命的價格七毛錢)>이다. 여기에서 작자는 5살 난 어린 소녀가 오빠와 울케에 의해 70전의 가격에 팔리는 “비천한 생명”의 이야기를 서술 하고 있다.

이는 작자가 溫州에서 직접 본 광경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파는 일은 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결코 괴이한 일이 아니다. 문장 속에서 그녀의 미래에 닥쳐올 갖가지 遭遇, 예컨대 첩으로 팔려가거나, 혹은 妓院에 팔려가 타락하여 娼妓로 살아가는, 즉 함부로 유린되는 운명을 짐작해 보면서, 이로부터 구사회의 암흑과 죄악을 폭로하고 있다. 필자는 격분하여 마지막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질문한다.

자신의 아이들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실로 간담이 서늘해질 일이다! 어느 날 금전세계 안에 생명시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위험이요, 우리 아이들의 모욕이다.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은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因此想到自己的孩子的运命, 真有些胆寒! 钱世界里的生命市场存在一日, 都是我们孩子的危险! 都是我们孩子的侮辱! 您有孩子的人呀, 想想看, 这是谁之罪呢? 这是谁之责呢?)<sup>46)</sup>

이로써 자신의 운명을 억압받는 민중들과 연결시켰고, 사람을 팔고 사는 사회현상을 비판하고 경고했다. 또한 팔려 가는 여자아이에 대해 동정을 표

46) <生命的价格—七毛钱>, 《朱自清全集》第1卷, 23쪽

현하고, 식인사회의 암흑을 폭로·비판하며 작자의 주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두 번째로 살펴 볼 작품은 <위결삼군을 추도하며(哀韋杰三君)>이다. 여기에서 작자는 3·18 사건 중에 희생된 청화대학생 위결삼(韋杰三)군에 대해 진지한 애도와 경의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자는 이 작품을 통해 위군의 인간됨과 애도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북양군벌 정부의 잔혹한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지극한 슬픔의 심정으로 사랑스러운 청년학생을 추억하고 있는 이 글은 읽은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탄식을 자아낸다. 작자는 인물의 두드러진 특징을 포착하였는데, 특히 여러 차례 위군의 미소를 묘사 하였다.

그의 미소는 그의 순결한 마음을 보여주며, 모든 것과 친해지고 싶어함을 나타낸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침묵 또한 잊을 수 없다.

(他的微笑显示他纯洁的心, 告诉人, 他愿意亲近一切; 我是不会忘记的。还有他的静默, 我也不会忘记。)47)

한편 위군이 죽은 후 그의 입관식에서 상처난 몸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묘사 하였다.

그의 양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뺨은 푹 꺼지고, 입술은 찢혀져 이가 다 드러나니,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의 그 온화하고 고상함이 어디에 있는가?

(他的两颧突出, 颊肉瘪下, 掀唇露齿, 那里还像我初见时的温雅呢?)48)

이 처럼 위군의 변한 얼굴을 묘사하여 생전의 온화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게

47) <哀韋杰三君>, 《朱自清全集》第1卷, p60

48) <哀韋杰三君>, 《朱自清全集》第1卷, p61

함으로써 더 깊은 슬픔을 자아냈다. 비통하고 안타깝고 비분한 문장 분위기 속에서 작자는 청년학생의 불굴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위군, 우리는 자네를 잃어버렸으니, 장차 어디서 자네를 찾겠나?  
(韦君, 我们失掉了你, 更将从何处觅你呢?)<sup>49)</sup>

이로써 작자의 비통한 심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 나타나는 필자의 애통함은 광범위 하다. 사제간의 개인적 불행을 넘어서 사회·민중에 대한 슬픈 탄식이며, 이상과 희망을 상실한 비애이다.<sup>50)</sup>

마지막으로 살펴 볼 작품은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뒷모습(背影)>이다 <뒷모습(背影)>은 부자간의 정을 그린 작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힘들게 전전하는 지식인들의 괴로운 사상·감정을 나타냈다. 아들을 보내며 아들을 위해 힘겹게 굴을 사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 시켰다.

까만 천으로 된 둥근 모자를 쓰시고, 까만 마고자에 진한 쪽빛 무명 두루마기를 입으신 아버지께선 좀 비틀거리셨지만,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플랫폼을 내려가셨다. 그러나 철로를 건너 저 쪽 플랫폼의 벽을 기어오르실 때의 모습은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두 손을 플랫폼 위 시멘트 바닥에 붙이고 두다리를 비비적거리며 위쪽으로 발버둥쳐 올라가시다가 순간 몸이 왼쪽으로 기우뚱할 때 무척이나 힘이 들어 보였다. 나는 이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아버지께 들길까봐, 그리고 남이 볼까 두려워 얼른 눈물을 닦았다. 내가 다시 밖을 보았을 때, 아버지께선 이미 주황색 굴을 안고 이 쪽으로 오고 계셨다.

(我看见他戴着黑布小帽, 穿着黑布大马褂, 深青布棉袍, 蹒跚地走

49) <哀韋杰三君>, 《朱自清全集》第1卷, 62쪽

50) 林非 《朱自清名作欣赏》, 202쪽

到铁道边，慢慢探身下去，尚不大难。可是他穿过铁道，要爬上那边月台，就不容易了。他用两手攀着上面，两脚再向上缩；他肥胖的身子向左微倾，显出努力的样子。这时我看见他的背影，我的泪很快地流下来了。我赶紧拭干了泪，怕他看见，也怕别人看见。我再向外看时，他已抱了朱红的桔子往回走。)51)

이 “뒷모습”은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친이 직업을 잃어 가정형편이 날로 어려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형상화 된 것이다.52) 그리하여 피와 눈물들이 섞인 냉담·암담한 색조로써 주인공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비극성의 “뒷모습” 형상을 그려냈다. 전체 문장은 함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풍부한 감정을 소박한 묘사와 서술 속에 포함시켜 동요하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힘들게 전전하는 지식인의 괴로운 사상과 감정을 나타냈으며, 동시에 한 중산 가정이 몰락해 가는 모습을 통해 제국주의와 북양군벌 통치하에서 중국인민이 빈곤화 되어 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뒷모습(背影)>은 작자 자신의 체험으로서 실상을 표현하고 정취를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이 산문은 당시 단편 산문으로는 미증유의 거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인구에 회자되어 대대로 읽혀져 내려오는 작품이 되었다.

### 2.1.2 風景을 描寫한 抒情散文

朱自淸은 풍경을 묘사한 서정산문도 많이 썼다. 이는 朱自淸 산문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자, 두드러진 성과이기도 하다. 이런 서정산문에서는 산수풍경의 묘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 또는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노젓는 소리와 등불 그림자의 진회하(桨声灯里的秦淮河)>, <달빛 연못(荷塘月色)>, <몽롱한 달, 몽롱한 새, 드리

51) <뒷모습(背影)>, 《朱自淸全集》第1卷, 48쪽

52) <뒷모습(背影)>, 《朱自淸全集》第1卷, 48쪽참조

워진 발붉은 해당화(月朦朧, 鳥朦朧, 帘卷海棠紅)>, <록(綠)>, <백수제(白水滌)>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 작품이다.

먼저 <노젓는 소리와 등불 그림자의 진회하(槳聲燈里的秦淮河)>는 1923년 가을, 유평백과 함께 남경의 진회하를 유람한 후에 쓴 기행문 형식의 산문으로, 육조 시대의 화려한 옛 꿈속에 심취하여 당시 혼탁한 강물로 변해버린 진회하를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내용을 보면 진회하의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있고, 또 자신이 진회하에서 보고들은 것과 그것에 대한 느낌도 있으며, 진회하의 야경에 대한 묘사, 진회하 妓女들의 행위에 대한 기술도 있다. 이렇게 진회하의 온화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5·4 퇴조 후 암울한 현실생활 아래 놓인 소자산계습 지식인의 당혹스러움과 번민을 표현했으며, 또한 그속에는 진회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기녀에 대한 깊은 동정이 내포되어 있다.

문장은 진회하를 유람하는 노선에 따라서 한 여름 밤, 강 위의 아름답고 다양한 경치를 세밀하게 그려냈다. 그 중에는 휘황한 등불이 물 속에 비치는 아름다운 광경도 있고, 등불과 달이 서로 융화되는 신비한 모습도 있으며, 시끄럽게 다투는 소란스런 장면도 있다. 또한 청명한 등불 속의 공허하고 쓸쓸한 경치도 있다. 한편 당시 작자가 강 위의 경치에 깊이 빠져 흥취가 막고조되었을 때, 오히려 기녀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는 그 기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었으나 ‘도덕률’의 압박을 받아 감정과 이성의 모순 속에서 결국 그 노래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마음속은 실의에 빠져 멍해짐을 느낀다.

이 때,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졌다. 진회하에는 원래 노래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한 가희(歌姬)들이 있다. 이전부터 차를 파는 배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번에 남경에 왔을 때, 먼저 차를 파는 배에 가보았는데, 매우 쓸쓸하게 느껴져 나는 실망했다. 뜻밖에 그녀들은 여전히 진회하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또한 뜻밖에도 그녀들이 우리에게 치근거리려 나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 “노래 몇 곡 신청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배에 있는 그 많은 시선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듯 했다. 동시에 근처의 다른 배

위의 그 많은 눈빛이 우리 배를 쳐다보고 있는듯 했다. 나는 정말 난처했다! .... 그리하여 나는 결연쩍게 “아니, 됐어요. 우리는..... 됐어요” 라고 말했다. .... 나는 도덕률의 압박을 받아 그녀들을 거절한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매우 미안했다. 이 미안함은 그녀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에 대한 것이기도 한다. 그녀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과한 것을 바라지 않았으나, 결국 뭔가를 바랬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튼 우리는 그녀들을 거절했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녀들의 바램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것은 나를 매우 실망스럽게 했다. .... 우리는 매우 쓸쓸함을 느꼈다! .... 우리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다만 후회와 실망이 남을 뿐이다. 배 안은 곧 실망과 서운함으로 가득했다. .... 우리의 마음속은 환멸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

(这时却遇着了难解的纠纷。秦淮河上原有一种歌妓，是以歌为业的。从前都在茶舫上，唱些大曲之类。....这次到南京，先到茶舫上去看看，觉得颇是寂寥，令我无端的怅怅了。不料她们却仍在秦淮河里挣扎着，不料她们竟会纠缠到我们，我于是很张皇了。....说，“点几出吧”！他跨过来的时候，我们船上似乎有许多眼光跟着。同时相近的别的船上也似乎有许多眼睛炯炯的向我们船上看着。我真窘了！....一面不好意思地说，“不要，我们……不要。”他便塞给平伯。平伯掉转头去，摇手说，“不要！”那人还腻着不走。平伯又回过脸来，摇着头道，“不要！”于是那人重到我处。我窘着再拒绝了他。他这才有所不屑似的走了。我的心立刻放下，如释了重负一般。我们就开始自白了。我说我受了道德律的压迫，拒绝了她们；心里似乎很抱歉的。这所谓抱歉，一面对于她们，一面对于我自己。她们于我们虽然没有很奢的希望；但总有些希望的。我们拒绝了她们，无论理由如何充足，却使她们的希望受了伤；这总有几分不做美了。这是我觉得很怅怅的。.....我们感到了寂寞了！.....我们却只不愿回去，于是只能由懊悔而怅惘了。.....我们心里充满了幻灭的情思。)53)

작자는 야경 구경을 통해 자신의 번뇌를 풀고자 잠시 고요함을 추구했으

53) <桨声灯里的秦淮河>, 《朱自清全集》第1卷, 7-15쪽

나, 이러한 “알 수 없는 심란함” 이 그의 마음 속에 또다시 “환멸의 감정” 을 더해준 것이다. 당시 5·4 운동의 고조된 물결이 이미 지나가고 문화사상계가 잠시 고민에 처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예전처럼 성실히 탐색하고 사고하여 이런 다소 퇴폐적인 “환멸의 감정” 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감정은 바로 암울한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의 실망스런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sup>54)</sup>

전편은 景속에 情이 융합되어 있어 미묘한 흐름 속에 필자의 복잡한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선명하고, 풍부하고, 소박하고, 중후하고, 침울한 색채 속에서 불빛, 달빛, 물빛을 묘사 할 때, 작자는 자신의 의미심장한 감정을 담아냈다. 그는 처음에 곧 진회하의 옛 자취에 이끌려 “공허” 와 “고요” 의 느낌이 생겨났다. 그러나 妓女들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노랫소리, 처량하고 날카로운 거문고 소리, 산들산들 불어오는 미풍, 찰랑거리는 물결이 함께 전해져 왔을 때, 그는 미친듯 자중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 이끌림과 현실의 흔들림으로 그의 감정이 요동쳤으니, 그가 단순히 풍경화를 그려낸 것이 아니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강렬한 느낌을 분석해 낸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매우 뛰어난 기교의 풍경묘사 속에 융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문장 속의 진회하를 음미할 때, 또한 그의 감정과 생각의 변화, 마음속의 풍량을 음미할 수 있다.

표현수법을 보면 섬세한 근경 묘사와 성기고 열은 원경묘사, 고요한 광경과 움직이는 광경, 實景과 虛驚이 있으니, 기복이 자유롭고 변화가 다양하다. 문장은 “등불 그림자” 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각도에서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와 과장을 더하여 당시 진회하의 아름다운 경치도 명확히 그려내고 있다.

## 2.2 中期산문 (1927년~1937년 抗戰 이전)

1927년 북벌전쟁의 실패와 4·12정변은 중국을 “암흑의 중국” 으로 바꾸어 놓았다. 朱自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극대한 고통과 두려움, 의기소침함에

---

54) 林非 《朱自淸名作欣赏》，109쪽참조

빠져 들어 결국 방황·투쟁의 “십자로”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상아탑”으로 향했다.<sup>55)</sup> 국내 정치 형세의 변화가 朱自淸의 사상적 고민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때 나온 산문집 《너와 나(你我)》, 《유럽잡기(歐遊雜記)》, 《런던잡기(倫敦雜記)》에는 정직한 지식인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그 중 산문집 《너와 나(你我)》 속에는 대부분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의 작품이 많다. <죽은 아내에게(給亡婦)>, <겨울(冬天)>, <택우기(擇偶記)>, <꽃을 보다(看花)>, <남경(南京)> 및 산문집 《뒷모습(背影)》에 수록되어 있는 <아녀(兒女)>, <위악청군을 기리며(懷魏握青君)> 등이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 중 몇 작품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죽은 아내에게(給亡婦)>는 죽은 아내 무종점을 애도하며 쓴 서신체 산문이다. 아내에 대한 지극한 정을 그린 이 작품 속에 그는 아내의 자식에 대한 공평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따라서 글자 행간마다 작자의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있다.

첫 문장은 먼저 죽은 아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아이들과 “나”라고 언급하고, 이어 이 감정을 따라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전개해 나간다.

겸(謙)! 세월이 빠르군요. 어느새 당신이 가신 지 3년이 되었구려.

당신이 가고 없는 이 3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변했는지 당신은 주의를 안 한지라 모르시겠구려. 그 동안 당신이 사무치게 못 잊은 것은 당신의 자식들, 그리고 나겠지요. 애들과 나는 당신의 세계를 양분 해 놓고 괴롭혔던 거지요.

(謙, 日子真快, 一眨眼你已经死了三个年头了。这三年里世事不知变化了多少回, 但你未必注意这些个, 我知道。你第一惦记的是你几个孩子, 第二便轮着我。孩子和我平分你的世界, 你在日如此...)56)

55) 吳爲公·李樹平 編, 《朱自淸散文全編》第1卷, 8쪽참조

56) <給亡婦>, 《朱自淸全集》第2卷, 163쪽

제 1·2단락에서는 우선 여섯 명의 아이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극진한 보살핌과 공평한 사랑을 회고하여 서술했다. 또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걱정하고 아이들에게 힘을 쓴 것이 그녀를 병들어 지치게 한 것이라고 회고한다.

본래 허약한 당신 체질에 7·8년 동안 네 아이들을 키우느라 당신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 않소. . . . . 당신의 짧은 12년 결혼 생활 중 11년의 세월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지. 그러면서도 당신은 조금도 싫증 내지 않고 모든 힘을 남김없이 다 바쳤지. 그래서 결국 궤멸에 이른 것이오.!

(你的身子本来坏，四个孩子就累你七八年。 . . . . 你的短短的十二年结婚生活，有十一年耗费在孩子们身上；而你一点不厌倦，有多少力量用多少，一直到自己毁灭为止。)57)

제 3·4단락에서는 자신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서술했다. 생전 아들 다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쓰게 했던 사람이 작자 자신이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살아 생전 자신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일들, 즉 물질적인 도움에서 정신적인 도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일들을 서술하면서 그녀가 죽어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당신의 짧은 12년은 남들의 긴 일생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오! 껌! 당신의 그 가냘픈 몸으로 어떻게 견디었소! 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무겁게 떠맡겨 당신을 죽게 했으니, 다시 무슨 낙으로 당신을 대할 수 있겠소! . . . . 12년 동안 나로 인한 당신의 고통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산 것은 겨우 5년. 생활이 아무리 어렵거나 떨어져 살았더라도 당신은 나에게 화내기는 커녕 원망 어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소.

(在短短的十二年里，你操的心比人家一辈子还多；谦，你那样身子怎么经得住！你将我的责任一股脑儿担负了去，压死了你；我如何对

---

57) <給亡婦>, 《朱自清全集》第2卷, 164쪽

得起你！……这十二年里你为我吃的苦真不少，可是没有过几天好日子。我们在一起住，算来也还不到五个年头。无论日子怎么坏，无论是离是合，你从来没对我发过脾气，连一句怨言也没有。)58)

마지막은 죽은 아내에 대한 조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신께 말씀드릴 것은 당신이 남긴 다섯 아이를 정성껏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 미안하지 않게 하는 그것 뿐입니다. -당신, 겸! 편히 잠드소서!  
(我们想告诉你，五个孩子都好，我们一定尽心教养他们，让他们对得起死了的母亲—你！谦，好好儿放心安睡吧，你)59)

이로써 작자가 죽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지극한가를 알 수 있다.

<아녀(兒女)>는 부성애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문장은 먼저 자신이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쓸모 없는 아버지라고 하소연한다.

나는 지금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다. ....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라 남편으로서도 부족하고, 아버지로서는 훨씬 더 부족하다. “자손숭배”，“아동중심”의 철리 혹은 윤리를 나 역시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단지 이론일뿐 사실상 나는 여전히 옛 전통에 따라 야만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보통의 아버지와 같다. 근래 거의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잔혹함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그 체벌과 질책을 생각하면, ....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我现在已是五个儿女的父亲了。.....我是个彻头彻尾自私的人，做丈夫已是勉强，做父亲更是不成。自然，“子孙崇拜”，“儿童本

58) <給亡婦>，《朱自清全集》第2卷，165~166쪽

59) <給亡婦>，《朱自清全集》第2卷，167쪽

位”的哲理或伦理，我也有些知道……可惜这只是理论，实际上我还是仍旧按照古老的传统，在野蛮地对付着，和普通的父亲一样。近来差不多是中年的人了，才渐渐觉得自己的残酷；想着孩子们受过的体罚和叱责，始终不能辩解——像抚摩着旧创痕那样，我的心酸溜溜的。)60)

또한 작자는 아버지의 인자함을 먼저 서술한 후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잔혹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어, 阿九의 안부를 물으셨다. 그때 阿九는 여전히 백마호에 있었다. 편지에는 “나는 너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너 또한 그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고 써있었다. 나는 이 말 때문에 한바탕 울음을 터트렸다. 나는 왜 아버지처럼 인자하지 못할까? 나는 잊어서는 안된다.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去年父亲来信，问起阿九，那时阿九还在白马湖呢；信上说，“我没有耽误你，你也不要耽误他才好。”我为这句话哭了一场；我为什么不像父亲的仁慈？我不该忘记，父亲怎样待我们来着！)61)

연이어 과거에 자신이 아이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자신을 질책하고 반성했다.

그 야말로 용서하기 힘든 폭행들이다! ...여태껏 실로 “제 역할을 못하는 쓸모 없는 아버지”였음을 깨달았다.

(真是难以宽宥的种种暴行呢！.....觉得从前真是一个“不成材的父亲”，.....)62)

60) <兒女>, 《朱自清全集》第1卷, 83쪽

61) <兒女>, 《朱自清全集》第1卷, 83~84쪽

62) <兒女>, 《朱自清全集》第1卷, 85~86쪽

이러한 자책 속에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나타난다. 특히 자신이 북경에 왔을 때, 양주에 남겨둔 두 아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는 심경을 표현했는데, 여기에 한층 더 깊은 부자간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지금 북경에는 이 세 아이들 뿐이다. 阿九와 轉兒는 작년에 북경으로올 때, 어머니께서 잠시 양주로 데리고 가셨다. ... 나는 그 이별하던 아침을 분명히 기억한다. ... 차에서 내릴때, 그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무척이나 가여웠다. ... 그는 일전에 우리에게 “여름방학 때 꼭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때 우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두 번째 여름방학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먼 양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원망할까? 아니면 우리를 걱정할까?

(现在在京的, 便只有这三个孩子; 阿九和转儿是去年北来时, 让母亲暂时带回扬州去了.....我清清楚楚记得那分别的一个早上。.....下车时, 看着他的害怕与累赘, 很觉惻然。.....他又曾和我们说, “暑假时一定来接我啊!”我们当时答应着;但现在已是第二个暑假了, 他们还在迢迢的扬州待着。他们是恨着我们呢? 还是惦着我们呢?)<sup>63)</sup>

마지막에서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자식을 교육시키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나 역시 점점 나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하는 지를 점차적으로 알아가도록 그들을 교육시킬 것이다. .... 직업·인생관 등은 그들 자신이 정하는 것이 좋다. ....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들의 기본적인 역량, 즉 포부와 안목을 길러주는 것 뿐이다.

(可是近来我也渐渐觉着自己的责任。.....我得计划着, 让他们渐渐

63) <兒女>, 《朱自清全集》第1卷, 87~88쪽

知道怎样去做人才行。……职业，人生观等，还是由他们自己去定的好……目前所能做的，只是培养他们基本的力量—胸襟与眼光)<sup>64)</sup>

전체 문장을 통해 “아이들이 생기면서 남북으로 헤어져 혈육의 두터운 정을 나눌 수가 없고,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다 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는 뜻을 피력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생활의 무거운 부담 아래 놓인 구사회 지식인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반영해 냈다.<sup>65)</sup>

이 두 작품은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부인에 대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소한 주제일 수 있으나 작자는 정신적으로도 이미 지나간 세월을 잡아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자세히 드러나 있어서 독자를 깊이 감동시킨다. 또한 과거의 일을 기술함으로써 현실에 대해서는 할만한 말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고민스런 심경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시국의 변천이 그의 혁명의식을 약화시켰고, 열정을 감퇴시켰으며, 그에게 준 것은 고통 뿐이었다. 또한 가정형편의 궁핍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자식들의 부담이 더해졌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매우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고, 오직 추억만이 그가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 날수 있는 출구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현실의 꿈에서 나와 지나간 옛 꿈속에서 아름다운 꽃잎을 거두어 “꿈”의 나라,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넓은 “사랑”의 마음, 예컨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 하는 마음을 엿 볼 수 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적막하고 황폐해졌다. 그래서 지난 일을 추억함으로써 “사랑”의 천국을 추구하여 자신의 적막하고 황폐한 마음을 위로했다. 그는 아름다움의 휘몰을 통감하고 이미 지나간 “사랑”이 것처럼 달콤하고 따스하고 향기롭고 귀중한 것이었음을 깊이 절감하고 있다.<sup>66)</sup>

64) <兒女>, 《朱自清全集》第1卷, 88~89쪽

65) 秦亢宗 主編, 《中國散文辭典》, 424~425쪽참조

66) 吳爲公·李樹平 編, 《朱自清散文全編》, 8~9쪽참조

## 2.3 後期산문 (抗戰~1948년)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 침략자의 포화로 인해 華北에는 조용한 책상 하나 놓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의 서재도 평온을 잃게 되었다. 침략자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으니, 1937년 그는 학교를 따라 남하하였다.

이 시기 그는 무거운 심정과 간절한 기대를 안고 적지 않은 잡문을 썼다. 《語文影及其他》 67)에 수록된 많은 문장과 <몽자잡기(蒙自雜記)>, <서남채풍록서(西南採風錄序)>, <이하루(這一天)> 등은 모두 이 기간에 쓰여진 것이다. 그 밖의 또다른 문장은 《잡문유집(雜文遺集)》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몽자잡기(蒙自雜記)>는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 학교를 따라 남하하면서 거친 ‘蒙自’ 라는 도시에 대해 쓴 작품이다. 작자는 그 곳에서 5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그 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묘사하였는데, 그 묘사 중에 ‘蒙自’ 만의 특별한 부분을 그려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주의할 만한 것은 문에 써 붙이는 對聯이다. .... 가장 많은 것은 항전의 대련이다. 곧명에도 있긴 하지만 이곳만큼 많지는 않다. 이 많은 것들이 분위기를 조성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 국가를 잊지 않도록 한다. .... 蒙自의 본격적인 선전은 당국의 표어 이외에 교육국의 노력이 기재할 만한 것이다. 그들은 옛 연극무대를 강연무대로 바꾸고, 또 매일 게시물을 붙여 소식을 전했다. .... 蒙自에는 햇불 축제가 있다. 다른 지방은 음력 6월 24일 밤에 열리지만, 蒙自는 25일 밤에 열린다. 이날 밤 모든 도시 사람들은 문 앞에서 갈대나 나뭇가지를 태워 곳곳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놓고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그것을 에워싸고 있다. .... 이 불은 밝이고, 열이고, 힘이고, 청년이다. ....마치 망망한 암

---

67) 산문집 《語文影及其他》는 두 권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語文影及其他》은 어문의 의의를 토론한 것이고, 《人生的一角之輯》은 생활 단편을 토론한 것이다.

혹 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불을 연상케 하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위대하다.

(城里最可注意的是人家的门对儿。...但是最多的是抗战的门对儿。昆明也有，不过按比例说，怕不及蒙自的多；多了，就造成一种氛围气，叫在街上走的人不忘记这个时代的这个国家。.....蒙自的正式宣传工作，除党部的标语外，教育局的努力，也值得记载。他们将一座旧戏台改为演讲台，又每天张贴油印的广播消息。.....蒙自有个火把节，四乡是在阴历六月二十四晚上，城里是二十五晚上。那晚上城里人家都在门口烧着芦秆或树枝，一处处一堆堆熊熊的火光，围着些男男女女大人小孩；.....这火是光，是热，是力量，是青年。.....想象着一片茫茫的大黑暗里涌起一团团的热火，光景够雄伟的。)68)

이렇게 ‘蒙自’의 평범하지 않은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항전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작자는 이런 ‘蒙自’ 사람들로부터 국민의 순수하고 올바른 기상을 느꼈다.

항전 승리를 전후하여 昆明에서는 민주운동이 발생하였으며, 그의 사상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李公朴·聞一多의 죽음이 학자로서의 朱自淸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의 태도 역시 한층 더 과격해져 창작 기조에도 분명한 변화가 발생했다. 朱自淸은 문학의 “生路”는 바로 “새 시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이 “새 시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반내전·민주를 위한 투쟁이며 “반봉건·반제국주의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69)

사상의 변화로 인해 그가 얘기한 것은 모두 현실적인 문제였다. 이때의 문장은 ‘說理’에 치중해 있었고, 정취는 비록 초기 같지 않지만 사상이 확고했으며, 또한 현실을 견주고 있었다. 문자 역시 주도면밀하고 매우 적절했다. 그는 이것을 “잡문”이라 칭했으며, 그 자신의 의지나 취향이 집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현대적 입장’에서 말하고 이야기했다. 이른바

68) <蒙自雜記>, 《朱自淸全集》第4卷, 398~401쪽

69) 朱自淸, <什么是文学的“生路”? >, 《朱自淸全集》第3卷, 164~167쪽참조

이 ‘현대적 입장’ 이라함은 ‘雅俗共賞’의 입장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俗人 혹은 보통사람에게 치우친 입장이며, 인민에게 가까이 다가간 입장이라 할 수 있다.<sup>70)</sup>

이렇듯 사상의 심각한 변화가 그로 하여금 용감하게 인민에게 다가가도록 하였고, 결국 인민대중을 위한 길을 걷게 되었다. 朱自淸은 일찍이 여러 차례 “노신의 ‘잡감’ 역시 시다.”<sup>71)</sup>라고 칭찬했다. 그래서 魯迅을 모방한 잡문 속에서 부정하고, 희망하고, 투쟁도 했던 것이다.

### 제3절 作品에 대한 評價와 영향

朱自淸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이름난 산문 작가이다. 그는 시가와 소설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산문창작 방면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다. 朱自淸이 쓴 산문들은 리얼리즘의 원칙하에 창작된 것으로 政論性散文과 自叙性散文, 그리고 풍경을 묘사하거나 서정을 노래하는 미문 등이 있다. 특히 그의 政論性散文은 예리하고 심오하면서도 능란한 필법으로 당시의 사회와 인생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어 긍정적인 사상적 의의를 지닌다.

그의 산문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성실했던 형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다. 朱自淸은 친구나 동료를 회고하는 글 속에서도 자신의 평소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을 펼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된 미학사상을 어디에 두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朱自淸의 산문에 대해 郁達夫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朱自淸이 시인이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의 산문 역시 시의(詩意)로 가득차 있었다. 문학연구회의 산문작가들 가운데 빙심(氷

70) <論雅俗共賞·序>, 《朱自淸全集》, 218쪽 참조

71) 朱自淸, <魯迅先生的雜感> : (魯迅의 ‘雜感’ 也是詩)

心)여사를 제외하고도 문자의 미(文字之美)에 있어서는 그가 제일 나은 셈이었다. 72)

郁達夫가 여기서 지적인 ‘詩意’와 ‘문자의 미’는 朱自淸 산문의 주요한 예술적 성취를 매우 적절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몇 가지가 있다.

먼저 朱自淸은 산문의 예술적 구상을 매우 중시하였다. 때문에 산문의 사상과 예술을 하나의 초점에 변증법적이고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데 뛰어났다. 뿐만 아니라 인공적 가공의 흔적을 전혀 노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 하나가 충실한 ‘詩意’와 자연스럽고 산뜻한 의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朱自淸의 산문에는 그윽하면서도 참된 감정이 담겨져 있어, 못 작가들과는 다른 뛰어난 개성과 정취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朱自淸의 산문 언어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구어체로서 풍부한 표현력의 ‘담화풍(談話風)’을 띤다. 따라서 그의 산문은 이국적이지도 귀족적이지도 않아 발표되자마자 일종의 순수와 소박을 표방하는 신선한 작풍을 일으켰다.

---

72) 郁達夫, 《中國 新文學大系散文 2집》의 머리말, 《중국 현대문론선》 제 1책, 귀주인민출판사, 1982년 8월판.

### 제 3 장 朱自淸 散文의 言語 藝術性 分析

#### 제1절 繪畫美를 통해 본 藝術的 특징

朱自淸은 산문의 영역 속에서 뛰어난 풍경 화가이다.<sup>73)</sup> 좋은 문장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경치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작가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추상적인 사물을 형상화하고, 무형의 대상을 형상화 시키고, 정지한 사물을 동태화 시키고, 단조로운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반복을 통해 간결화 시키고, 딱딱한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평범한 것을 돌출시켜 표현하고, 평면적인 것을 입체화 시키고, 무생물도 생명이 느껴지도록 표현해야 한다.<sup>74)</sup> 그러면 사물을 쓰고, 경치를 그리고, 사실을 기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독자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되어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이러한 생생한 형상을 통해 구체적인 입체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작문은 문자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서사, 서정, 풍경묘사는 그림이며 곧 이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림이기도 하다”<sup>75)</sup> 라고 했듯이 朱自淸이 이미지를 통해 詩意를 드러내는 창조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朱自淸의 산문은 형상을 통해 예술 화면을 알맞게 조화시키고 詩情과 화필이 서로 융합된 형상으로 사람의 영혼을 그려내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朱自淸 산문 언어의 회화미를 산문언어의 입체감과 색채미 두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73) 馬焯榮, <論朱自淸의 散文>, 朱金順 編 《朱自淸研究資料》, (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1), 122쪽

74) 藏德均, <朱自淸散文言語의 藝術美>, 西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

75) 張樺 主編, 《山野掇拾》, 《朱自淸全集》上卷, 110쪽

## 1.1 입체감

朱自淸 산문 언어의 입체감은 먼저 그 독특한 예술 구상에 있다. 朱自淸은 현대 산문의 대가이고, 그의 산문을 읽으면 우리들은 종종 아주 쉽게 감정에 대해 토로하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풍경묘사와 문장구조가 엄밀하고, 예술적 경지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은 물론, 언어 풍격도 독특하다. 朱自淸의 산문은 언어 예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회화나 조각과 소조를 방불케 한다.<sup>76)</sup> 그의 아름다운 산문들은 정교하고, 아름답고, 영롱하고, 밝고, 깨끗한 공예품과 같다.

<달빛 연못(荷塘月色)>에서, 작가는 달밤의 연못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한다. 아름다운 풍경묘사를 기본으로 내용의 단계가 분명하며, 앞뒤가 서로 호응하고 자연적이고 전체와 조화되어있는 구조미를 형성한다.

먼저 달빛을 묘사하였으며, 연못은 달빛을 배경으로 해서 몽롱한 정취를 갖게 하고, 달빛은 연못을 배경으로 해서 조화로운 선율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단계별로 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통일되었으며, 하나가 분열하여 둘이 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대립된 사물을 하나로 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화면은 조화를 이루며 매력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4, 5, 6번째 단락에서는 마치 필자가 목을 뿌려서 기예에 깊이 통달한 서예가가 붓글씨를 쓴 것 같다. 또한 예술적 구상이 치밀하여 혼연일체인 달빛 아래 연못의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가 분열하여 둘이 된다.

아울러 朱自淸은 경치를 묘사하는 抒情散文에서 언어의 입체감을 살려 각종 예술 수법의 독창적인 작용 및 유사언어의 기교를 운용하였다. 시나 그림처럼 아름다운 예술 경계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 전체적인 경치와 구체적인 경치, 정태와 동태, 정면과 측면 및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각각의 감각을 분별하여 나타내고, 다각도, 다측면, 다단계적으로 섬세하게 묘사 했다. 또 비유, 대구, 대조 등 많은 예술 수법을 이용했다.<sup>77)</sup>

76) 崔美歌, <淺談朱自淸的散文的藝術特色> 宿州教宣學院學報, 2005, 94쪽참조

77) 藏德均, <朱自淸散文言語的藝術美>, 西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 2쪽참조

달빛 아래의 연못을 그리듯 작가는 먼저 정적인 것을 쓰고 나중에 동적인 것을 묘사했다. 마치 숨씨가 뛰어난 대화가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낸 듯하다. 정태를 쓸 때 먼저 전체 경치를 쓰고 나중에 구체적인 경치를 썼다. 즉, 먼저 연잎을 쓰고 난후 연꽃을 썼다. 동태를 쓸 때는 먼저 가까운 곳을 쓴 다음 먼 곳을 쓰고, 먼저 연꽃을 쓰고 연잎을 썼다. 이는 결코 무리한 문자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사물을 관찰하는 세심함과 정확성, 예술적 느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송당유기(松堂游記)>에서는 정태적인 白皮松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백송이라고 해서 희한할 것은 없었고 그저 많이 있기에 좋았다. 내가 너를 밀치듯 네가 나를 밀치듯 빼곡하게 들어섰다고 해서 희한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성기게 들어서서 보기 좋았던 것이다. 이곳과는 다르게 만일 집 정원의 사방에 각각 나무 한 그루씩 이 있다면 그걸 성기다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즐겨 보겠는가? 이곳의 정원은 널찍해서 좋았다. 설령 사면팔방에서 백송이 달려든 다해도 좋을 것이다. 가운데가 바로 송당(松堂)이었다. (白皮松不算奇, 多得好, 你挤着我我挤着你也不算奇, 疏得好, 要像住宅的院子里, 四角上各来上一棵, 疏不是? 谁爱看? 这儿就是院子大得好, 就是四方八面都来得好. 中间便是松堂)<sup>78)</sup>

<南京>에서는 鷄鳴寺 뒤의 평평한 누각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그곳에는 銃眼이 없어 평평한 누각이나 다름없다. 보드랍고 파릇 파릇한 잔디를 밟으며 걸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용하고 아늑하기만 하다. 여름철 한낮에는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검은색 나비들이 보인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나비들은 상하로 오르내리며 群舞를 선보이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두꺼운 기둥처럼 보

78) 張燁 主編, 〈松堂游記〉, 《朱自清全集》下卷, 831쪽

인다.

(沒有蝓子，真像平台一樣。踏在茸茸的草上，說不出的靜。夏天白天有成群的黑蝴蝶，在微風里飛；這些黑蝴蝶上下旋轉地飛，遠看像一根粗的圓柱子。)79)

위의 예문에서 보면 이리저리 움직이는 생물체인 검은 나비를 정지되어 있는 굵은 원기둥으로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동적인 것을 정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묘사한 것은 풀 위의 조용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朱自淸은 이러한 묘사를 통해 시대의 흔적이 묻어 있는 남경에 대한 슬픔과 처량한 마음을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언어에서 활발함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이고 한 동사가 잘 사용되면 형용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80) 朱自淸은 연못 위의 달빛을 단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묘사하였다. 먼저 달빛을 묘사하고 그 다음 달 그림자를 썼으며, 마지막에 빛과 그림자를 결합하여 조화롭게 묘사하고 있다. 비유를 통해 정면과 측면 등 동시에 여러 종류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문장에 나타나는 동사의 신묘한 작용이다.81) 달빛을 흐르는 물처럼 고요히 연잎과 연꽃에 쏟아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면 묘사에는 적절히 느낄 수 있는 비유와 생동감이 있고 정확한 동사를 사용한다. 무형의 정태적인 달빛의 형상화·동태화는 물과 같이 깨끗한 달빛의 색채를 써냈을 뿐만 아니라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 달빛의 동태를 써냈고, 동시에 연잎의 검푸름과 유연하고 윤기 있는 것을 묘사하고 표현해 냈다.82)

또한 측면에서도 달빛을 묘사하고 있다. 희미하게 열은 안개가 연못에 피어 오르고, 연잎과 연꽃은 우유로 씻은 듯하고, 또 얇은 망사에 가려진 꿈만 같다고 비유하며, 무형의 달빛 형태를 동태화하는 한편 통감수법도 활용하고 있다. 달빛의 부드러운 순결함 뿐만 아니라 백색의 우유와 같은 달빛의 유연

79) 張燁 主編, 〈南京〉, 《朱自淸全集》上卷, 102쪽

80) 崔美歌, 〈淺談朱自淸的散文的藝術特色〉 宿州教宣學院學報, 2005, 97쪽

81) 姜幼厘, 〈朱自淸散文의 言語藝術美 研究〉,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7쪽

82) 郭淑蘇, 〈意境美와動態美 - 朱自淸散文藝術特色淺談〉, 95쪽

함도 써냈다. 물위에 떠도는 열은 안개와 같이 달빛과 연잎이 서로 비추어 만들어 내는 색채 변화, 그리고 달빛 아래 연못의 몽롱함과 눈물이 주루룩 흐르는 흐릿함을 나타냈다. 또 뒤쪽의 달 그림자와 같이 작가는 그림이 연잎 위에 그려져 있다고 말한다. 그림같은 묘사는 달빛을 의인화하고 정태를 동태화 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에서 모든 자연물은 넘쳐 흐르는 생기를 가지고 있고 움직이듯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빛과 그림자가 합류한 것에서 조화로운 선율을 가지게 된다. 마치 바이올린 선상에서 흘러나오는 명곡과 같다고 비유한 부분 역시 정태와 동태를 결합하여 유동적인 동태감을 구성하고 동시에 선율미를 형성하였다. 더불어 음향효과도 조성하였다.

이렇듯 언어 예술의 입체감은 그의 산문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독특한 예술 구상과 독창성은 생동적이고 진부하지 않은 묘사를 나타내게 했으며, 그 묘사를 통해 입체감을 잘 나타내주었다.

## 1.2 색채미

朱自淸의 산문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색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의 산문이 풍기는 정취는 시와 같고 그림과 같다. 이 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색채적 조화미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색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 풍경과 사물의 자연적 색채를 가리킨다. 일상에서 보는 푸른 하늘과 흰구름, 푸른색의 풀과 붉은 꽃, 청산유수 및 녹색 봄과 청록색 여름, 황색 가을과 흑색 겨울의 사계와 같은 색채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감정세계의 색채로써, 경물(景物)을 표현할 때의 작가 심경의 상황과 변화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내포된 의미는 主와 客이 서로 영향을 주어 문학 작품에서 자주 어울리고 혼연일체가 되어 主客이 나누어지기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주관적인 감정색채는 無形·無影이고 변화가 다양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말로

전하기 어려우니 단지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밖에 없다. 객관적 색채는 有色·有影이어서, 작가와 독자가 이미 알고 있으나 이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보여주는 것이다.<sup>83)</sup> 이처럼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여 주관적 감정 색채와 객관적 자연 색채가 조화를 이루었으며, 자연 색채의 정확한 파악과 감정적인 색채의 깊고 정밀한 표현으로 아름다운 효과를 가져왔다.

<봄(春)>은 경치를 묘사하는 抒情散文의 대표 작품이다. 작가는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정취와 색채감이 풍부한 언어로 가볍고 유쾌한 심정을 담아 생기발랄함을 묘사하며, 희망으로 가득찬 봄의 형상을 나타냈다. 문장의 시작에 두 개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간략한듯 하지만 뜻은 많고, 단어는 짧지만 감정은 길다. 또 봄에 희망하는 것을 서정적으로 종이에 생생하게 나타내어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어서, 바람, 물, 산, 태양을 통해 봄경치의 윤곽을 간단하게 묘사하였다.

① 봄바람이 불어온다. 봄의 발걸음이 다가선 것이다.

(东风来了, 春天的脚步近了。) <sup>84)</sup>

② 산은 산뜻함으로 윤기가 들기 시작하고, 강물도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고, 태양의 얼굴 또한 빨갱게 붉어지기 시작했다.

(山朗润起来了, 水涨起来了, 太阳的脸红起来了。) <sup>85)</sup>

한 폭의 봄 경치가 그림이 되어 생생하게 다가온다. 작자는 봄풀, 봄꽃, 봄바람, 봄비 및 봄날의 사람들을 상세히 써서 마치 다섯 폭의 그림처럼 각 방면에서 봄의 특색을 잘 나타냈다. 봄풀의 푸르름, 봄꽃의 향기, 봄바람의 부드러움, 봄비의 세밀함, 사람의 희망과 활력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연녹색의 배경에서 꽃의 색채도 두드러진다.

83) 藏德均, <朱自清散文言語的藝術美>, 5쪽

84) 張燁 主編, <春>, 《朱自清全集》下卷, 806쪽

85) 張燁 主編, <春>, 《朱自清全集》下卷, 806쪽

붉은 꽃은 불덩이 같고, 분홍 꽃은 노을 같고, 흰 꽃은 눈송이같다.

(红的象火, 粉的象霞, 白的象雪。)86)

색채의 대비를 보면, 녹색은 더 푸르게, 붉은색은 더 붉게, 흰색은 더 하얗게 해서 모든 장면이 대립되고 조화롭고, 다양하고 통일감이 있다.

<록(綠)>에서의 색채미는 더 아름답다. 梅雨瀑는 일반적인 녹색인데 朱自清은 감정을 풍부하고 매혹적으로 변환시켰다. 이 작품은 빛과 정신력으로 독자를 매혹 시킨다. 이와 같이 시나 그림처럼 아름다운 녹색을 보며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나 정말 떠나기 싫구나. 내 어찌 그대를 떠날 수 있으리. 열두세 살 소녀에게 그러하듯 나 그대를 토닥거리고 어루만진다. 내 그대를 두 손으로 받들어 입에 넣으니 입맞춤하는 것이네. 그대에게 이름 하나지어주니 이제부터 ‘푸른 소녀’ 라고 부르면 어떨까?

(我舍不得你； 我怎舍得你呢？我用手怕着你，抚着你，如同一个二十三岁的小姑娘。我又掬你入口，更是吻着她了。我送你一个名字，我徒此叫你‘女儿绿’，好么？)87)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을 보면 朱自清은 산문을 창작할 때 화면 색채 자체가 지니는 경향과 자신의 내재적 감정을 통일 시키고 있다. <봄(春)>에서 화려한 색채는 작가가 봄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감정과 서로 부합되고 있다. <달빛 연못(荷塘月色)>에서의 몽롱한 색채는 작가의 잔잔한 애수와 서로 잘 어울리고 있다.

86) 張燁 主編, 《春》, 《朱自清全集》下卷, 806쪽

87) 張燁 主編, 〈月朦朧, 烏朦朧, 帘卷海棠紅〉, 《朱自清全集》下卷, 806쪽

## 제2절 音樂美를 통해 본 藝術的 특징

심미적 관점에서 보면, 문학언어는 시적언어, 감각언어, 정감언어, 심리적 언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신비하고 선명한 리듬감인 음악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의 생성, 변화와 서술과정은 작가의 주체 감각의 정신과정이고, 심리적으로 혼돈이 자욱한 사물의 기호화의 과정이다 이 기호화의 과정에서 작가의 심리활동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다.<sup>88)</sup>

朱自淸 산문의 음악미는 그의 창작 동기나 주체의 사상 속에 표현되고 있다. 음악의 작곡가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이나 생활의 인식에 대하여 강렬한 창작적 영감이 떠오를 때 그 정감을 아름다운 선율이나 음악적인 미가 넘치는 글로 표현하고 있다.<sup>89)</sup>

### 2.1 서정적인 언어 활동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언어는 연상과 상상이 풍부한 예술 기호이다. 어떤 경우는 한 단어가 바로 하나의 정서를 나타내고, 한 문장이 한 정서의 집단이 된다. 이 주관적인 생각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작가의 생활 및 주관적인 체험에서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창조에서도 온다. 느낌과 생활이 없으면 예술은 없는 것이다.<sup>90)</sup> 만약 작자의 풍부한 생활의 축적이 없다면, 심미적인 심리 정서를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예리한 느낌과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이 없다면 심미적인 정서의 기호화가 불가능하다. 작자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 중 하나는 작자는 항상 자기주체적인 예리한 느낌과 독자적 경험을 빌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 있고 정서가 뚜렷하고 생동적이며 독특한 언어 부호는 작가의 주체적인 감정을 표현 해낸다.

88) 藏德均, <朱自淸散文言語的藝術美>, 10쪽

89) 이태훈, <朱自淸散文言語藝術性研究>, 609쪽

90) 藏德均, <朱自淸散文言語的藝術美>, 10쪽

이러한 재주와 능력은 작가가 정서를 중심언어 부호로 자기의 생명 감각과 예술 감각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의 언어는 주관성, 정서성, 감각성을 갖춘 ‘시적언어’이다. 감각화, 정서화, 정감화의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언어는 음악성을 가진 언어이고, 언어의 음악미는 朱自淸 산문언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작자의 주체적 정서와 정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없으면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언어도 생성되지 못한다. 또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언어가 아니면 작가의 정서, 정감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언어와 작가의 정서, 정감 및 사상은 相生相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주체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다. 沈從文은 정서, 정감에서 언어문자로의 전화과정을 재미있게 “情緒體操”라고 칭했다.<sup>91)</sup>

朱自淸은 학자이고 시인이며 작가였다. 그는 예술언어를 창조하며 미학사상에 따라 그의 “情緒體操”를 진행시켰다. 이는 작가의 내부 언어가 외재적 언어 문자로 전환되는 과정이다.<sup>92)</sup>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과정은 반드시 고유의 미묘함과 강렬한 리듬과 법칙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 리듬과 법칙을 음악성이라고 칭하고 글에서는 문학 언어의 음악성 혹은 음악미라고 한다.

朱自淸 산문의 음악미는 그의 산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휘선택에서 정서가 생성되고 동시에 또 작가의 의식적인 정서와 정감을 기탁한다. 예를 들어 <春>은 찬미하는 필조로 봄을 묘사했다. 오감과 심리적 경험을 신선하고 아주 먼 전원의 목가식의 정서를 화면같이 표현했다. 먼저 촉각을 사용해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온 것은 “바람이 얼굴을 스쳐도 차갑지 않네, 버드나무를 흔드는 봄바람이기에. ‘吹面不寒楊柳風.’ 라는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다.

朱自淸 산문의 음악미는 서정성 언어의 활용에서도 나타난다. 주체적 정서와 정감의 배합으로 朱自淸은 그 주체적 정서와 정감이 활용되는 서정적 언어를 창조해 냈다. 언어는 마음에서 나는 소리의 가장 아름다운 제재와 물질의 매개이다. 朱自淸은 삶과 가정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그의 산문의 소재는 주로 일상생활 특히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自然景物 등 현실적 소재

91) 藏德均, <朱自淸散文言語的藝術美>, 11쪽

92) 郭淑蘇, <意境美與動態美 - 朱自淸散文藝術特色淺談>, 96쪽

를 다루었다.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서 청담하고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여 정서와 정감을 묘사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서정적 리듬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뒷모습(背影)>을 살펴보자.

우리 부자는 강을 건너 기차역에 이르렀다. 나는 아버지에게 짐을 지키고 계시라 하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 차표를 샀다. 짐을 옮기려면 아무래도 짐이 많아서 짐꾼에게 옷돈을 얹어줘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네들과 한바탕 흥정을 벌이고 계셨다. 내가 옆에서 보기에 아버지는 역부족이었다.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당신이 품삯을 흥정하고야 말았다. 나는 기차에 올랐다. 찻간까지 따라 오신 아버지는 창가쪽에 자리를 잡아 주셨다. 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주신 자주색 외투를 깔았다. 아버지는 작별인사를 하듯 이야기 하셨다. “애야, 조심해서 가거라, 밤에는 특히 주의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해라”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기차 안의 심부름꾼에게 나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의 어리숙함을 비웃었다. ‘돈만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다니! 더구나 나같이, 이렇게 다 큰 청년을 맡기다니, 내가 스스로 어련히 잘 할라구.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당시 난 지나치게 똑똑하게 굴었던 것 같다.

(我们过了江，进了车站。我买票，他忙着照看行李。行李太多了，得向脚夫行些小费才可过去。他便又忙着和他们讲价钱。我那时真是聪明过分，总觉得他说话不大漂亮，非自己插嘴不可，但他终于讲定了价钱；就送我上车。他给我拣定了靠车门的一张椅子；我将他给我做的紫毛大衣铺好座位。他嘱我路上小心，夜里要警醒些，不要受凉。又嘱托茶房好好照应我。我心里暗笑他的迂；他们只认得钱，托他们只是白托！而且我这样大年纪的人，难道还不能料理自己么？唉，我现在想想，那时真是太聪明了！)<sup>93)</sup>

93) 張燁 主編, 《背影》, 《朱自清全集》上卷, 27쪽

朱自淸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날의 정경을 아버지의 뒷모습에 초점을 맞춰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자식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세밀한 묘사를 통해 자식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다 성장한 아들이 못미더워 아버지는 역까지 배웅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애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다 성장한 아들을 위해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곁을 사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부각시켜 정감을 증가시켰고, 서정성이 풍부하여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렇듯 朱自淸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삶의 모습을 서정적 리듬으로 바꾸어 독자를 감동시켰다.

## 2.2 수사법 활용

朱自淸 산문에서 언어의 음악미는 작가가 여러 종류의 수사 예술 수법을 활용하고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어법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생성된다. 그가 사용하는 수사 기법은 대구, 비유, 반복, 반문, 전화 등이 있다. 이 수사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각양각색의 상태를 나타낸다.

본 고에서는 몇 가지 수사법을 통해 작품을 살펴보겠다. 먼저,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으로 직유, 은유, 의인, 의성, 의태, 풍유, 제유, 환유 등이 있다.

(1) 저 잔디의 자욱한 푸르름과 무성한 푸르름은 물과 같고 연기와 같고 꿈과 같다.

(那草地一片迷濛的绿, 一片茅草绵的绿, 像水, 像烟, 像梦)<sup>94)</sup>

(2) 물에서 우뚝하게 높이 솟은 연잎은 곳곳이 세운 무희의 치마같다. 겹겹이 포개진 연잎 사이로 간간이 하얀 꽃송이가 맺혀 있다. 더러 탐스럽게 피어 있거나 부끄럽게 곧 피어날 듯한

94) 張燁 主編, 《公園》, 《朱自淸全集》上卷, 204쪽

꽃망울은 마치 알알이 나뉘는 진주 같고, 파아란 하늘의 반짝이는 별 같고 또 방금 목욕하고 나온 뽀얀 미인 같기도 하다.

(叶子出水很高, 像亭亭的舞女的裙。层层叶子中间, 零星地点缀着些白花, 有袅娜地开着的, 有羞涩地打着朵儿的; 正如一粒粒的明珠, 又如碧天里的星星, 又如刚出浴的美人。)<sup>95)</sup>

(3) 예술적인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은 부드러운 분위기 라고 생각한다. 그 분위기에 젖으면 마치 유장한 통소소리를 듣는 듯, 장미꽃의 향기를 맡는 듯, 그리고 백조털 카펫에 누워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我以为艺术的女人第一是有她的温柔的空气; 使人如听着箫管的悠扬, 如嗅着玫瑰花的芬芳, 如躺着在天鹅绒的厚毯上。)<sup>96)</sup>

(1)은 푸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一片迷濛的绿, 一片芊草绵的绿’에 대한 것을 ‘水, 烟, 梦’에 직유법을 사용함으로써 이해를 빠르게 하고 표현의 멋을 얻을 수가 있다.

(2)에서는 연잎과 연꽃을 표현함에 있어서 ‘如刚出浴的美人’와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타나내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마지막 (3)에서는 예술적인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을 ‘통소 소리를 듣는 듯, 장미꽃의 향기를 맡는 듯, 그리고 백조 털 카펫에 누워 있는듯 (听着箫管的悠扬, 如嗅着玫瑰花的芬芳, 如躺着在天鹅绒的厚毯上)<sup>97)</sup>한 비유를 통해서 참신하고 적절하게 부드러움을 표현 하였다.

다음, 반복은 표현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단어나 문장, 단락 등을 연속적으로 아니면 간격을 두어 사용함으로써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고 깊은 사상을 표현하거나 문장의 맥락적 단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언어의 리듬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반복은 언어의 중복 사용으로써 이는 어떠한 목적이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수사의 개념이지 절대 굳더더기나 공허한 언어의 낭비가 아니

95) 張燁 主編, 〈荷唐月色〉, 《朱自清全集》上卷, 40쪽

96) 張燁 主編, 〈桨声灯里的秦淮河〉, 《朱自清全集》上卷, 7쪽

97) 張燁 主編, 〈桨声灯里的秦淮河〉, 《朱自清全集》上卷, 7쪽

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바람이 불어온다. 봄의 발걸음이 다가선 것이다.

(盼望着, 盼望着. 东风来了, 春天的脚步近了。)98)

구의 연속반복으로 ‘盼望着’ 부분을 연속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간에 기타의 단어나 문장이 끼어 있지 않다. 봄을 간절히 기다림을 표현하는데 반복의 수사방식을 사용하였다. 덕분에 간절함의 감정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 다음, 반문법을 보고자 한다. 반문이라 함은 물음에 답하지 않고 되받아 묻거나 되물음으로 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똑똑한 그대, 나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들의 시간은 왜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건가요?

(聪明的, 你告诉我, 我们的日子为什么一去不复返呢?)99)

‘我们的日子为什么一去不复返’ 이라고 글을 마치지 않고 ‘为什么’ 를 사용하여 묻는형식의 반문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수사법은 전화(轉化)법이다. 여기서의 전화는 정적인 것이 동적으로, 동적인 것이 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朱自清은 정지해 있는 사물에는 생명력을 주고 생물은 정체하게 하여 문장에 생동감을 주었다.100)

햇살이 발이 달렸는지 조용히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나 역시 망연히 덩달아서 방안을 땀뻘았지요. 세수를 할 때는 세월이 세수

98) 張燁 主編, 〈春〉, 《朱自清全集》下卷, 806쪽

99) 張燁 主編, 〈匆匆〉, 《朱自清全集》上卷, 3쪽

100) 鄭智仁, 〈朱自清散文中 나타난 創作技巧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第5輯, 1996, 34쪽

대야 속으로 지나가고, 식사를 할 때는 그릇을 스쳐갔습니다. 묵묵히 있을 때는 멍한 두 눈동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세월이 너무도 종종하게 지나가는 것을 알아채고는 손가락을 펼쳐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움켜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침상에 누웠지요. 그는 날렵하게 내 몸을 가로질러 발가락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태양과 작별을 하면서 이제 하루가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太阳他有脚啊，轻轻悄悄地挪移了；我也茫茫然跟着旋转。于是一洗手的时候，日子从水盆里过去；吃饭的时候，日子从饭碗里过去；默默时，便从凝然的双眼前过去。我觉察他去的匆匆了，伸出手遮挽时，他又从遮挽着的手边过去，天黑时，我躺在床上，他便伶伶俐俐地从我身上跨过，从我脚边飞去了。等我睁开眼和太阳再见，这算又溜走了一日。)101)

위의 예문은 쓴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의 허무함을 나타낸 것이다. ‘조용히’, ‘은밀히’, ‘지나가다’, ‘가로지르다’ 등의 동사와 형용사는 태양을 묘사한 것이고 인칭대명사 ‘他’는 태양을 가리킨다. 그는 태양을 활발, 민첩하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생동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젊은 시절은 빨리 흘러가고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주제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봄(春)>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배나무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앞다투어 꽃을 피운다. 붉은 꽃은 불덩이 같고, 분홍 꽃은 노을 같고, 흰 꽃은 눈송이 같다. 향긋한 꽃내음을 느끼며 눈을 감으니 나뭇가지마다 벌써 복숭아 · 살구 · 배가 주렁주렁 열린 듯 싶다. 가지마다 탐스럽게 핀 꽃을 찾아 모여든 수많은 꿀벌들이 웅웅거리고, 크고 작은 나비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그 밖에 들

101) 張燁 主編, 《匆匆》, 《朱自清全集》上卷, p3

꽃이 여기저기 만발한다. 이름있는것, 이름 없는 것 등 가지각색의 들꽃이 꽃더미 속에 흩어져 눈처럼 별처럼 반짝반짝 수놓고 있다.

(桃树, 杏树, 梨树, 你不让我, 我不让你, 都开满了花赶趟儿。红的像火, 粉的像霞, 白的像雪。花里带着甜味; 闭了眼, 树上仿佛已经满是桃儿, 杏儿, 梨儿。花下成千成百的蜜蜂嗡嗡的闹着, 大小的蝴蝶飞来飞去。野花遍地是: 杂样儿, 有名字的, 没名字的, 散在草丛里像眼睛像星星, 还眨呀眨的。)<sup>102)</sup>

여기에서는 의인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봄을 인간화, 생명화 하여 글에 생기와 활력을 주었다. 또 대구를 활용해서 짧은 단문으로 씌어져 경쾌하고 명랑하다. 동시에 시각에서 미각과 청각으로 바뀌는 감각의 전환이 있다. 봄에는 만물이 다시 소생하고 온갖 꽃들이 다투어 핀다. 이와 같이 대구, 비유, 반복, 반문, 전화(轉化)등과 같은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선율미, 내재적 음악미를 잘 표현하였다.

### 제3절 口語體로 본 藝術的 특징

朱自清 산문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바로 구어체이다. 그는 평상시 말하는 것과 같은 어투로 글을 썼고, 구어체에서 표현 방식을 찾아내곤 했다. 즉 생동적인 언어로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했다. 그의 작품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그와 마주하고 앉아 그가 하는 얘기를 듣는 듯하다. 또한 일상적인 어투로 생활하며 느끼는 것을 흥미진진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의 작품을 읽으면 더욱 감동을 받게 된다.<sup>103)</sup>

102) 張燁 主編, 《春》, 《朱自清全集》下卷, p806

103) 藏德均, <朱自清散文言語的藝術美>, p20~21

그때 나는 서구화된 어조를 찬성하지 않았고, 그 어조를 피하고자 했으며, 가능한 한 구어를 사용하여 언문일치의 방향으로 가고 싶었다.

(那时我不赞成所谓欧化的语调, 想试着避免那种语调, 我想尽量用口语, 向着语言一致的方向走)<sup>104)</sup>

시와 문은 모두 구어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어떠한 복잡한 것을 막론하고 구어에 의거하므로 일종의 언어이다.

(诗与文都出于口语; 而且无论如何复杂, 原都本与口语, 所以都是  
一种语言)<sup>105)</sup>

朱自清은 언어 예술에 대해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구어 사용을 주장했고 언문일치를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그의 산문창작은 “담화풍” 식의 친근감으로 가득 차 있다.

구어화나 담화풍은 朱自清 산문 언어예술 중 또 하나의 커다란 특색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이것은 독특한 풍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朱自清 외에도 周作人, 林語堂, 梁實秋, 沈從文, 丰子愷 등의 저명한 작가들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06)</sup>

친근감과 자연스러움은 朱自清이 추구한 산문 언어의 미학 목표이며 그의 언어가 도달한 일종의 경지이기도 하다. 언어의 풍경에 대해서 심오하게 연구한 朱自清은 교사의 어조로 글을 짓는 것을 반대하였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심미적인 장애를 조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글을 창작할 때 항상 독자를 자기의 친한 사람이나 친구로 여기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일상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어조와 같이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삶을 표현하였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나는 지금 다섯 아이의 아버지다. ...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라 남편으로서도 부족하고, 아버지로서는 훨씬 더 부족하다.

104) 張燁 主編, 《写作雜談》, 《朱自清全集》上卷, p257

105) 張燁 主編, 《郎讀與詩》, 《朱自清全集》上卷, p412

106) 藏德均, <朱自清散文言語的藝術美>, 21쪽

“자손숭배”, “아동중심”의 철리 혹은 윤리를 나 역시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 사실상 나는 여전히 옛 전통에 따라 야만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보통의 아버지와 같다. 근래거의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잔혹함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그 체벌과 질책을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어 阿九는 여전히 백마호(白馬湖)에 있었다. 편지에는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너 또한 그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써있었다. 나는 이 말 때문에 한바탕 울음을 터트렸다. 나는 왜 아버지처럼 인자하지 못할까? 나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我现在已是五个儿女的父亲了。..... 我是个彻头彻尾自私的人, 做丈夫已是勉强, 做父亲更是不成。自然, “子孙崇拜”, “儿童本位”的哲理或伦理, 我也有些知道; .....可惜这只是理论, 实际上我是仍旧按照古老的传统, 在野蛮地对付着, 和普通的父亲一样。近来差不多是中年的人了, 才渐渐觉得自己的残酷; 想着孩子们受过的体罚和叱责, .....我的心酸溜溜的。.....去年父亲来信, 问起阿九, 那时阿九还在白马湖呢; 信上说, “我没有耽误你, 你也不要耽误他才好。”我为这句话哭了一场; 我为什么不像父亲的仁慈? 我不该忘记, 父亲怎样待我们来着!)<sup>107)</sup>

이와 같이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어조는 실제로 朱自淸의 아름다운 인격을 구현한 것이다. 이 글은 생동적이고, 자연스러움과 친근감을 들게 한다. 朱自淸의 산문을 통해 그가 강렬하고 선명하며, 세심하고 부드러우며, 관용적이고 태도가 온화하고 거동이 우아한 학자이자 시인이며 군자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성실함과 관용적이고 온화한 인격적 수양은 그의 산문 작품에서의 자연적 풍격의 기초를 구성한다.<sup>108)</sup>

朱自淸의 진실된 인격은 그의 작품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절대적인 요소이고 그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예술적 매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07) 張燁 主編, 《兒女》, 《朱自淸全集》上卷, 48쪽

108) 金宏宇, <朱自淸散文新論>, 2쪽

<뒷모습(背影)>, <죽은 아내에게(給亡婦)>, <아녀(儿女)> 등과 같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작품에서는 작가가 스스로 아버지, 아내, 아이, 친구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소박한 언어로 나타냈다.

<뒷모습(背影)>의 결말부분을 살펴보면,

북경에 온 뒤로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 내 몸은 그런 대로 괜찮다. 단지 어깨가 자꾸 걸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구나. 젓가락을 들거나 붓을 쥐기가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아마 갈 날도 멀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까지 읽어내려간 나는 편지를 잠시 접어 두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 방울 사이로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검은색 마고자에 남색 두루마기를 입으신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아! 아버지를 언제 다시 뵈 수 있을는지!

(我北来后, 他写了一信给我, 信中说道: “我身体平安, 惟膀子疼痛厉害, 举箸提笔, 诸多不便, 大约大去之期不远矣。”我读到此处, 在晶莹的泪光中, 又看见那肥胖的、青布棉袍黑布马褂的背影。唉! 我不知何时再能与他相见!)<sup>109)</sup>

작가는 결말에 공감이 가도록 그의 가정사를 세세하게 서술했고 진실 되게 자기의 속마음을 나타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는 몹시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 <봄(春)>을 살펴보자.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배나무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앞 다투어 꽃을 피운다. 붉은 꽃은 불덩이 같고, 분홍 꽃은 노을 같고, 흰 꽃은 눈송이 같다. 향긋한 꽃내음을 느끼며 눈을 감으니 나뭇가지마다 벌써 복숭아·살구·배가 주렁주렁 열린 듯싶다.

(桃树, 杏树, 梨树, 你不让我, 我不让你, 都开满了花赶趟儿。红的像火, 粉的像霞, 白的像雪。花里带着甜味; 闭了眼, 树上仿佛已

109) 張燁 主編, 《背影》, 《朱自清全集》上卷, 28쪽

经满是桃儿, 杏儿, 梨儿。)110)

작자는 봄이 되자 모든 수목이 “다투어 꽃을 피우고 있다” 고 하지 않고, “한 치의 양보없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다투어 꽃을 피우는 모양도 “앞 다투어 꽃을 피운다” 라고 묘사하였다. 꽃이 지고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표현할 때는 “눈을 감으니 나뭇가지마다 벌써 복숭아·살구·배가 주렁 주렁 열린 듯싶다” 라고 문장을 구성하였다.<sup>111)</sup>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봄을 찬미하는 유쾌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朱自淸의 많은 작품에는 소박한 언어와 자연스러운 구어체를 사용하여 “담화풍” 식의 친근감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朱自淸은 구어로써 산문의 아름다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가라고 평가 받는 것이다.

---

110) 張燁 主編, 〈春〉, 《朱自淸全集》下卷, 806쪽

111) 이태훈, 〈朱自淸散文의言語藝術性研究〉, 611~612쪽

## 제 4 장 朱自淸 산문의 思想특징

### 제1절 人道主義

朱自淸의 산문 중에는 인도주의 사상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뒷모습(背影)>, <죽은 아내에게(給亡婦)>, <겨울(冬天)>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우선 <뒷모습(背影)> 의배경이 되는 1917년 당시의 중국은 제국주의와 북양군벌의 통치하에서 극도의 혼란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 아래서 중국 인민들은 날로 빈곤화되어 갔고,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던 朱自淸은 한 중산층가정이 나날이 몰락해 가는 모습을 작품 속에 반영 하였다.

작품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행하여 각각 남경과 북경으로 향하던 중 남경에서 머문 하루의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여관의 심부름꾼에게 아들을 배웅해 줄 것을 부탁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접 배웅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짐꾼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일과 기차까지 따라와서 창가에 자리를 잡아주는 장면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차간에서 아버지는 작별 인사하듯이 밤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이처럼 작자는 당시 20살이나 되는 다 큰아들이 못미더워 배웅하러 오신 아버지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의 감정을 잔잔하게 동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아버지가 철로를 건너 작자를 위해 글을 사오시는 대목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까만 천으로 된 둥근 모자를 쓰시고, 까만 마고자에 진한 쪽빛 무명 두루마기를 입으신 아버지께선 좀 비틀거리셨지만,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플랫폼을 내려가셨다. 그러나 철로를 건너 저 쪽 플랫폼의 벽을 기어오르실 때의 모습은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두 손을 플랫폼 위 시멘트 바닥에 붙이고 두 다리를 비비적거리며 위쪽으로 발버둥쳐 올라가시다가 순간 몸이 왼쪽으로 기울듯할 때 무척이나 힘이 들어 보였다.  
 (我看见他戴着黑布小帽，穿着黑布大马褂，深青布棉袍，蹒跚地走到铁道边，慢慢探身下去，尚不大难。可是他穿过铁道，要爬上那边月台，就不容易了。他用两手攀着上面，两脚再向上缩；他肥胖的身子向左微倾，显出努力的样子)<sup>112)</sup>

<뒷모습(背影)>은 결코 문장 속에서 부모자식간의 정을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지는 않는다. 일반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생활의 작은 부분들을 포착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더 진하게 배여 있는 것이다. 문장 중의 언어는 매우 소박하여 자식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은연중에 온 마음을 다해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지극한 정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고 있다. <뒷모습(背影)>은 사소한 일상을 적은 짧은 글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것은 작자가 짧은 문장 안에 다소 복잡한 감정을 매우 함축적이고 노련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솔한 감정을 담은 작품은 그것에 人情, 濫情主義, 人道主義 등의 구체적인 이론을 덧붙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결국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아들의 아버지에게 대한 지극한 효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겨울(冬天)>은 겨울에 경험했던 세 가지 일들을 회상하며 지은 글이다. 그러나 작품 속의 세 가지 다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인간관계의 사랑과 우정의 영원함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작자의 유년기 시절의 어느 겨울밤 이야기이다. 부자 네 사람이 난로주변에 둘러앉아 훈훈한 열기 속에서 두부를 삶아 먹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112) <背影>, 《朱自清全集》第1卷, 48쪽

냄비는 “난로” 위에 올려져 있는데 난로와 냄비가 모두 까맣게 그을려서 하얀 두부를 더욱 부각시킨다. 시간은 밤중인데 집이 낡아서인지 램프를 켜 놓아도 여전히 어둡침침하기만 하다. 아버지와 우리 삼형제는 식탁에 빙 둘러앉았다. 난로가 너무 높아서 아버지는 매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했다. 그리고는 살며시 고개를 들고 실눈으로 결눈질해 가며 뜨거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젓가락을 집어넣으셨다.

아버지는 두부를 끄집어내어 우리들 간장 종지에 하나하나 담아 주셨다.

(锅在“洋炉子”，(煤油不打气炉)上，和炉子都熏得乌黑乌黑，越显出豆腐的白。这是晚上，屋子老了，虽点着“洋灯”，也还是阴暗。围着桌子坐的是父亲跟我们哥儿三个。“洋炉子”太高了，父亲得常常站起来，微微地仰着脸，觑着眼睛，从氤氲的热气里伸进筷子，夹起豆腐，一一地放在我们的酱油碟里。)113)

<겨울>에서 묘사하고 있는 까맣게 그을린 냄비와 노란 등불 빛 등의 사물들은 모두 친근하게 그려져 소박한 서민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또한 추운 겨울밤, 북풍 한파 속에서 뜨거운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난로 주위에 다함께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과 아버지가 손수 꺼내주시는 두부를 기다리는 부자의 모습에서 따뜻한 천륜의 정을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작자의 청년기 시절 친구와 함께 서호에 놀러가 뱃놀이를 즐기던 때의 일을 서술하였다.

그때는 대략 9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호수 위에는 우리가 탄 배 한 척만이 떠있는 것 같았다. 미풍이 부는 가운데 달빛이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을 비추었다. 달빛이 비껴가는 순간 반사하는 빛은 새로 윤을 낸 은과 같이 반짝거린다. 호수 위의 산은 희미한 그림자만 드리우고 산 아래엔 떡엄떡엄 등불이 비추고 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없는 가운데 단지 노 젓는 소리만이 고르

---

113) <冬天>, 《朱自清全集》第1卷, 186쪽

게 들렀다.

(那时九点多了, 湖上似乎只有我们一只划子。有点风, 月光照着柔软的水波; 当间那一溜儿反光, 象新研的银子。湖上的山, 只剩了淡淡的影子。山下偶尔有一两星灯火。……我们都不大说话, 只有均匀的桨声。)<sup>114)</sup>

이 문장은 첫 단락에 비해 움직임의 느낌이 적어 비교적 정적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단락인데 이러한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작자는 우정의 영원함을 표현해 내고 있다. 문장의 끝 부분에는 비록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친구와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필자가 한적한 산간도시 태주에 있을 때의 일이다. 태주 밖의 경관은 천지가 공허한 적막한 세계이나 작자의 내면세계는 오히려 처자식에 대한 무한한 만족과 그리움으로 충만해 있다.

비록 밖은 늘 겨울이었지만 집안은 항상 봄이었다. 한번은 내가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엄마와 아들 세 사람이 아래층 부엌 창문을 열어 놓은 채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친진한 미소가 가득 담겨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 태주는 텅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아서 우리가족 네 사람만 남아 있는 것 같았다. 하늘도 텅 빈 채 우리 네 사람만 남겨놓은 것 같았다.

(外边虽老是冬天, 家里却老是春天。有一回我上街去, 回来的时候, 楼下厨房的大方窗开着, 并排地挨着她们母子三个; 三张脸都带着天真微笑的向着我。似乎台州空空的, 只有我们四人。)<sup>115)</sup>

이것은 외적인 공허함과 내적인 튼실함이 분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표현이다. 작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14) <冬天>, 《朱自清全集》第1卷, 186~187쪽

115) <冬天>, 《朱自清全集》第1卷, 187쪽

<겨울>은 세 가지의 다른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 부자, 친구, 처자식에 대한 인정이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고, 이것이 혹독하게 추운 겨울 속에서 오히려 따뜻한 봄과 같은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작품을 통해 朱自淸 산문에 내재된 인도주의 사상을 엿 볼수 있다. 인도주의란 박애적 정신에 의해 인류의 공존, 공영을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주의를 뜻한다. 5·4 운동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인 스스로가 하나의 인간임을 각성해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학을 통해 봉건시대의 소외되었던 계층 즉, 농민, 노동자, 여성, 아동, 빈민 계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폄박받고 소외되었던가를 폭로함으로써 인도주의 계몽운동을 실천해 나갔다. 朱自淸의 산문은 구사회의 변화무쌍한 인정세대를 배경으로 하여 따뜻한 인정과 인애를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강한 인도주의적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제2절 愛國主義

朱自淸은 어지러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써 강한 애국적 신념을 가진 작가 중의 한명이다.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애국정신은 그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작품 속에 반영하여 제국주의 세력의 군벌통치와 암흑으로 둘러싸인 사회를 문학작품을 통해 고발하고 규탄하고자 하였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잘못된 국수주의를 풍자하고 조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애국주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이 부류의 작품들은 그의 산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몇 작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북경이 함락되던 날(北平沦陷那一天)>은 전쟁 중에 승리를 바라는 초조한 마음과 나라에 대해 격려하는 작자의 마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쓰여진 1939년 중국은 ‘중일전쟁’ 과 내전으로 인하여 나라 안팎이 매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작자는 전운이 감도는 도시와 전

쟁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적 담담한 필체로 그려내면서 북경시가 함락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모두 여섯 개의 단락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최후 일전은 불가피해 보였다’ 116)라고 하여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암시했다. 두 번째 단락은 ‘한결같이 조용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117)라고 하여 전쟁이 촉발하는 시점에서의 사람들의 정태를 묘사하였다. 세 번째 단락은 ‘바쁜 경황에도 기분은 최고였다’ 118)라고 하여 승리를 짐작하는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표현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는 대략 훑어보고는 던져 버렸다’ 119)라고 하여 적군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단락에서는 ‘초조하게 전화를 통해 승전보를 기다리다가 12시가 되어 잠이 들었는데 혼란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꿈을 어렴풋이 꾸었다’ 120)라는 문장을 통해 전쟁에서의 승리를 희망하는 작자의 심경을 토로해 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서 작자는 북경이 함락되었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는다.

“송철원, 진덕순이 어젯밤 도주했다! 북경의 상황이 변했다! 적에게 귀순한 썸이 돼 버렸다!” 그는 어제의 기쁜 소식이 완전히 사실무근은 아니지만 너무 들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낙심하지는 말자! 어제 모두들 그렇게도 초조하게 승리의 소식을 기대하면서 승전보를 열렬하게 환영하지 않았는가. 북경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죽지 않았어. ....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날일 것이다. 그 날은 곧 올 곳이다! 나는 친구의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옳다고 믿었다.

(宋哲元、秦德纯昨夜里都走了！北平的局面变了！就算归了敌人了！他说昨儿的好消息也不是全没影儿，可是说得太热闹些。他说我

116) <北平沦陷那一天>, 「背城一战是不可免的」, 《朱自清全集》第4卷, 402쪽

117) <北平沦陷那一天>, 「像等着什么消息似的」, 《朱自清全集》第4卷, 402쪽

118) <北平沦陷那一天>, 「可是忙得高兴极了」, 《朱自清全集》第4卷, 402쪽

119) <北平沦陷那一天>, 「我们略看一看, 便撕掉扔了」, 《朱自清全集》第4卷, 403쪽

120) <北平沦陷那一天>, 「我们焦急的等着电话里的好消息, 直到十二点才睡。睡得不好, 模糊的凌乱的做着胜利的梦」, 《朱自清全集》第4卷, 403쪽

们现在像从天顶上摔下来了，可是别灰心！瞧昨几个大家那么焦急的盼望胜利的消息，那么热烈的接受胜利的消息，可见北平的人心是不死的。……那就是咱们得着决定的胜利的日子！这个日子不久就会到来的！我相信我的朋友的话句句都不错！)121)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승리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하여 필자는 전혀 불안정하거나 다급한 기색이 없이 대단히 냉담한 언어로써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장의 언어가 정적인 데 비해서 작품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격양된 감정이 감돌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들뜬 감이 있었다’ 라고 한 것은 민심의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우면서 비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북경이 언젠가는 다시 왁자지껄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친구의 말을 믿으면서 항전의 굳은 의지와 희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한 애국정신은 <표령(飄零)>이라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작품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슬프고 처량한 정취를 자아내면서 전개된다.

가을밤 휘황한 전등 불빛 아래 작자와 친구는 해외에 연락한 W군을 회담하면서 담담하고 비통한 색채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W군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으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생이다. 작자와 그가 서로 알게 된 것은 잡지에 그가 지은 소설을 읽게 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P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W도 그곳에 있었다. 내가 <신생> 잡지에서 본 것은 그의 소설이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그는 심리학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했다. P 대학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은 다 읽었고 문학책도 적지 않게 읽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간뒤 처음에는 몇 편의 글을 쓰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쓰질 않았다. … 그중에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소설은 북경 인력거의 생활을 묘사한 <비오는 밤>이다. W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 상당히 냉정할 텐데, 그러나 그의 소설

---

121) <北平沦陷那一天>, 《朱自清全集》第4卷, 403~404쪽

은 오히려 너무나 열정적이었다. W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 . . . W는 행위과의 심리학을 연구한다고 했다. 그는 거의 온종일 실험실 안에 처박혀 수많은 쥐들을 해부하는데 이를 통해 쥐들의 행위를 연구한다고 했다. . . . P는 또 W와 함께 연구를 하던 일본 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녀가 가버리자 그의 사랑도 끝이 났다. P가 이렇게 싱겁게 말하고 마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연애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 . . 과학과 문학, 과학과 연애, 이 사람이 바로 W였다.

(那时我在P大学读书, W也在那里。我在《新生》上看见的是他的小说;但一个朋友告诉我,他心理学的书读得真多;P大学图书馆里所有的,他都读了。文学书他也读得不少。 . . . . 他到美国去后,初时还写了些文字,后来就没有了。 . . . . 最使我不能忘记的是那篇《雨夜》,是写北京人力车夫的生活的。W是学科学的人,应该很冷静,但他的小说却又很热很热的。这就是W了。 . . . . 他说W在研究行为派的心理学。他几乎终日在实验室里;他解剖过许多老鼠,研究它们的行为。 . . . . P又告诉我W恋爱的故事。是的,恋爱的故事!P说这是一个日本人,和W一同研究的,但后来走了,这件事也就完了。P说得如此冷淡,毫不像我们所想的恋爱的故事! . . . . 科学与文学,科学与恋爱,这就是W了。)122)

작자는 W군의 문학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진실, 그가 과학에 대해 가진 독특한 견해 등의 몇 가지 인생측면을 골라 독자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 묘사하였다. 문장 중의 W군은 풍부한 개성을 지닌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능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청년이 미치광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에 대하여 작자는 비통한 마음을 품지만 그러한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묵묵히 있을 뿐이다.

“그는 중국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

“귀국한지 일년밖에 안됐잖아. C대학 보수가 별로였는가?”

122) 〈飄零〉,《朱自清的全集》第一卷, 63~65쪽

“보수도 별로인데다가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라고 했다.”

“미치광이?”

우리는 잠자코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할 말을 잃었다.

(“他觉得中国没有他做事的地方。”

“他回来才一年呢。C大学那边没有钱吧?”

“不但没有钱, 他们说他是疯子!” “疯子!”

我们默然相对, 暂时无话可说。)123)

이 작품의 어조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문장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오히려 숨 막히는 듯 한 긴장감과 억압된 분위기로 휩싸여 있다. 위의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시작부분에서 P군과 잠시 할 말을 잃은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W가 미국에 간 후 오랫동안 편지가 없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는 그래서 또 침묵에 잠겼다’ 라고 하며 끝을 맺는다. 이 문장의 앞뒤 연결은 마치 비극을 알리는 애탄의 소리와도 같이 독자들을 끝없는 미궁 속으로 깊이 빠뜨리는 듯 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표령(飄零)>은 한 유능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어두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중국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당시 중국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였는데 W군은 그러한 검은 물에 의탁해 있는 작은 배와 같은 운명인 것이다. 폭풍 한파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 배는 당시 중국의 모든 젊은이들을 실은 배이기도 하다. 운명의 신이 그러한 중국 청년들을 인생의 어느 해변으로 실어다 줄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작자는 그들의 미래를 던지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 <표령(飄零)>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실상 이것은 개인의 비극을 초월한 민족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작자가 침묵한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장 중에 표현된 우환 의식은 범위를 넓혀 말하자면 민족에 대한 깊은 애국주의에서 승화한 것이다.

---

123) <표령>, 《朱自清的全集》第一卷, 63쪽

## 제 5 장 結論

본고는 朱自淸의 문학인생을 살펴보고, 朱自淸 산문의 藝術性을 재평가 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작가의 작품을 시기별로 분석한 다음 작품의 특색을 살펴보았다.

朱自淸은 중국 신문학시기에 우수한 산문을 창작함으로써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周作人, 冰心 등의 뒤를 이은 뛰어난 산문가였다. 1920년대에 그가 쓴 많은 산문들은 예술적인 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서 가장 뛰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컸다. 그는 중국 현대문학계의 최고이며, 중국 산문계의 보배이다.

朱自淸의 문학활동은 초기·중기·후기로 구분된다.

초기(1923년~1927년)에는 풍경을 묘사한 抒情散文과 인물·사건을 기술한 敘事散文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敘事散文은 주로 비판적인 시각의 작품 이루며 그 대표작으로는 <뒷모습(背影)>, <생명의 값 70전 (生命的價格七毛錢)>, <배 안의 문명(航船中的文明)>, <위결삼군을 추도하며(哀韋杰三君)>, <여행잡기(旅行雜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抒情散文의 대표작으로는 <노 젓는 소리와 등불그림자의 진회하(槳聲燈里的秦淮河)>, <달빛 연못(荷塘月色)>, <몽롱한 달, 몽롱한 새, 드리워진 발, 붉은 해당화(月朦朧, 鳥朦朧, 帘卷海棠紅)>, <록(綠)>, <백수제(白水滌)>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기(1927년~1937년 抗戰 이전)에는 국내 정치 형세의 변화가 朱自淸의 사상적 고민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때 나온 산문집으로는 《너와 나(你我)》, 《유럽잡기(歐遊雜記)》, 《런던잡기(倫敦雜記)》가 있다.

후기(抗戰~1948년)에는 《語文影及其他》<sup>124)</sup>에 수록된 많은 문장과 《몽자잡기(蒙自雜記)》, 《서남채풍록서(西南採風錄序)》, 《이 하루(這一天)》 등은 모두 이 기간에 쓰여진 것이다. 그 밖의 또다른 문장은 《雜文遺集》에 수록되어 있다.

朱自淸 산문의 예술적 특징은 크게 회화미, 음악미, 구어체 세가지로 분류

---

124) 산문집 《語文影及其他》는 두 권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語文影及其他》은 어문의 의의를 토론한 것이고, 《人生的一角之輯》은 생활 단편을 토론한 것이다.

할 수 있다. 회화미에서는 풍경의 정태와 동태의 묘사를 통한 입체감과 색채미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음악미에는 주관적인 정서, 감정의 변화를 음악성 있는 언어로 전환하여 독자에게 함축적이면서 깊은 정서와 감정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朱自淸 산문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비유적 수사법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한 표현의 특징과, 비유, 반복, 반문, 전화(轉化) 등 여러 가지 수법을 활용하여 선율미, 내재적 음악미 등도 살펴보았다.

마지막 구어체에서는 생생하고 소박한 문체를 이용하여 생동감이 증가되고, 자연스럽게 평이하며,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고도의 예술적 성취에 도달한 朱自淸 산문들은 줄곧 백화미문의 전범으로 인식되어 당시 복고파들이 백화로는 미문을 쓸 수 없다고 여긴 관념을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산문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sup>125)</sup>

朱自淸은 세밀한 관찰로 인해 사물의 특징 포착은 물론 색채 조화에도 월등하였고 정경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비유도 독자들을 끝없는 예술의 세계로 이끌었다.

朱自淸은 산문을 통해 사회·정치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작자의 국가에 대한 깊은 애국주의 사상을 나타내고, 자전적인 제재를 통해 인도주의적인 사상도 담아 냈다. 이 부류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담담한 언어와 평이한 서술에 정감을 기탁하여 중국 민족, 나아가 보편적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과 내면세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朱自淸은 현대산문의 맹아기라고 볼 수 있는 1917년의 신문학 초창기부터 1948년의 신문학 苦難時期까지 중국의 현대산문을 성장·단련시켜 문학의 정좌에 올려놓았으며 중국 현대 산문의 민족형식을 창건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

125) 吴为公·李树平 编《朱自淸散文全编》，(浙江：浙江文艺出版社，1995)

## 제 6 장 參考文獻

### 단행본류

#### - 국내 -

- 권철, 김제봉, 《중국현대문학사》, 서울:청년사, 1989  
김학주 著, 《중국문학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0  
박하정 譯, 《아버지의 뒷모습》, 서울:태학사, 2000  
林非 著, 김혜준 譯, 《중국현대산문사》, 서울:고려원, 1993  
정범진 著, 《中國文學史》, 서울:학연사, 1998  
정수국, 윤은정 譯, 《중국현대문학개론》, 서울:신아사, 1998  
허세욱 譯, 《뒷모습》, 서울:범우사, 1976  
허세욱 著, 《중국현대문학사》, 서울:청년사, 1989  
黃修己 著, 高大中國語文研究會 譯, 《중국현대문학발전사》, 서울:범우사, 1991

#### - 중국 -

- 陳孝全, 劉泰隆 編, 《朱自清》, 福州:海風出版社, 1975  
朱曦, 《文學研究會作家儒文化心理和美學風格略論》, 云南師大學報, 1997  
朱金順 編, 《朱自清研究資料》,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1  
葉聖陶, 《朱佩弘先生》, 《朱自清》第1版, 香港:三聯書店, 1983  
陳孝全, 《朱自清傳全》, 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1  
林非, 《朱自清名作欣賞》, 北京:中國和平出版社, 1993  
吳為公, 李樹平 編, 《朱自清散文全編》, 浙江:浙江文藝出版社, 1995  
周喬森 編, 《朱自清全集》, 江蘇:江蘇教育出版社, 1996  
郁達夫, 《中國新文學大系·散文》, 貴州人民 출판사, 1982

吳為公，張王飛，林道立，《朱自清散文藝術論》，江蘇：江蘇教育出版社，1997  
郭濟訪 編，《朱自清傳》，江蘇：江蘇教育出版社，1997  
王瑤，《中國現代文學史論集》，北京大學出版社，1998  
張明林 編著，《朱自清自述。傳奇故事》，西苑出版社，2011  
姜建，吳為公 著，《朱自清年譜》，光明日報出版社，2011  
朱自清，《我是揚州人》，江蘇文藝出版社，2011

## 논문류

### - 국내 -

劉喜洲，〈朱自清의 散文研究〉，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2  
朴宣姬，〈朱自清의 小品文研究〉，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2  
吳眩娃，〈朱自清산문의 發展過程研究〉，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李台薰，〈朱自清散文의 言語藝術性研究〉，中語中文學，1997  
藏德均，〈朱自清散文言語의 藝術美〉，서남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曹嘉希，〈朱自清 小品文의 思想內容研究〉，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朱寅善，〈朱自清散文의 特性研究〉，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7  
崔美歌，〈淺談朱自清的散文의 藝術特色〉 宿州教宣學院學報，2005  
許琇禎，〈朱自清及其散文〉，국립대만사범대학，1990

### - 중국 -

吳周文，〈論朱自清的散文藝術〉，1979  
馬焯榮，〈論朱自清的散文〉，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1981  
許結，〈語言藝術與散文美境 - 朱自清散文的語言藝術評價〉，蘇州大學學報，1989

- 诸孝正, <朱自清散文艺术谈>, 华南师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80
- 蒋荫楠, <朱自清散文语言的修辞美>, 安徽大学学报, 1986
- 谢廷全, <朱自清散文的华美>, 湖北教育学院学报, 1996
- 霍秀全, <朱自清散文理论探析>, 首都师大中文系, 2000
- 王倩, <朱自清散文中比喻的运用>, 中国山西大学, 2004
- 徐根松, <朱自清散文的比喻美>, 浙江衢州 : 衢州学院中文系, 2006

